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신용석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0-08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COVID-19 and the Measure for the Resumption of
International Travel for Leisure Purpose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국제관광 위축
- 코로나19 장기화와 각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에 대한 대응 상이
- 국제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외국인 여행객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
-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과 면역여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대비 필요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대에 국제관광 재개관련 동향 및 이슈 파악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제관광 재개대비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트래블 버블과 면역여권 개념 및 특징
 - 주요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 동향
 -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재개방향 및 단계별 방안 (트래블 버블 중심)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2020년 6월 末
- 공간적 범위: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 내용적 범위
 -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영향
 -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
 - 코로나19와 해외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동향
 - 우리나라의 입국관리 현황
 - 우리나라 국제관광 재개방향 및 단계별 방안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업계 및 관련기관 간담회, 서면 인터뷰 등을 사용

2.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및 재개관련 주요 이슈

가.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관광객 감소 심각
 - UNWTO에서 예상한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음
 - 가을철을 맞아 유럽, 북미에서 확진자 급증
- 우리나라 국제관광 시장도 위축 지속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시장이 모두 위축되었으며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나. 국제관광 재개관련 이슈: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

- 면역여권: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보유를 증명하는 서류(협약)
 -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 및 경제침체를 감소하기 위하여 제안됨
 - 그러나 의학적 신뢰성 불충분, 윤리적 문제 등으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 낮음
 - 백신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유전자검사(PCR Test)가 계속 사용될 듯함
 - 향후 백신 출시로 접종이 일반화되면 백신 접종증명서를 디지털건강여권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트래블 버블: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 간의 여행 안전지대
 -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 간 ① 상호 ② 적용대상(공무, 상용, 관광) ③ 완화 정도(PCR 검사, 격리기간 등)를 협의하여 국제여행을 재개
 - 관광목적의 여행까지 포함하여 상호(Two-way)간 실시하는 국가는 드물며 싱가포르와 홍콩이 2020.12월 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3. 코로나19와 주요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동향

가. 유럽

-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이뤄진 지역구조로 인해 EU 회원국 간에는 국경통제가 거의 없으며 잦은 이동으로 인해 완전히 국경을 폐쇄하기가 어려운 구조
-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6월에는 EU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만 국경을 통제하고 회원국 사이에는 제한적인 통행을 유지
-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EU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3개 국가에 대하여 회원국들에게 국경개방
- EU 회원국들의 국경개방은 트래블 버블에 의한 국가 간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경을 개방한 것이었으며 개방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해외 방문객의 경우에는 간단한 서약서 이외에는 코로나19 사전 검사도 요구하지 않음
- 이러한 개방의 효과가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여행을 증가시키는 효과
- 국내여행 증가로 인한 감염전파의 결과 휴가철이 끝난 9월부터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커져 다시 봉쇄(Lockdown)에 들어가게 됨

나. 오세아니아

- 다수의 섬 국가들로 이루어진 오세아니아 지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륙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차단하고 외국인 입국을 막음
-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작은 섬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역능력과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는 강한 입국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
- 상호 의존도가 높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트래블 버블(trans-Tasman bubble) 논의 후 10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이는 뉴질랜드 --> 호주만의 방문이 가능하고 또한 호주 전 지역이 아닌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은 호주 입국 시에만 격리가 면제되고 뉴질랜드 귀국 후에는 14일간의 시설격리를 부담해야 해서 단기관광객들의 실제 이용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 아시아

- 아시아 지역은 코로나19 발생 지역이 중국이고 과거 사스 발생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대체로 입국관리를 강화한 편임
-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국제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이며 국가별로 대응방향에 차이가 있음
-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트래블 버블을 시행 중이며 상호 관광여행이 가능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Air Travel Bubble을 홍콩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대만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코로나19가 안정된 국가이지만 국제관광재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 접근
- 태국은 의료관광부터 시작하여 장기체류관광 분야로 국제관광 재개 확대 추진

라. 해외국가 국제관광 재개동향 시사점

- 해외 국가들의 국제관광 재개 동향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완전한 형태의 트래블 버블, 즉 1) 관광 목적의 2) 격리조치 없는 3) 상호 여행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
 - 싱가포르와 홍콩의 Air Travel Bubble 이 시행되면 최초의 사례로 2020.11.22.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로 연기
- 관광 목적의 트래블 버블 시행에는 시설(자가) 격리의 완전한 면제가 변수
 - 트래블 버블의 핵심 요소는 격리 면제인데, 의료계에서는 14일 격리 준수를 권고하고 있어 단기체류 관광객에는 큰 난관임
 - 완전한 형태의 트래블 버블인 싱가포르-홍콩이 시행 예정이므로 이의 운용 결과를 계속 관찰하는 것이 필요

4. 우리나라 입국관리 동향과 국제관광 재개 의견조사

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입국관리 동향

- 2020.03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 절차 실시 확대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격리 의무화 조치 유지
 - 2020.04 단기사증 효력정지와 사증면제, 무사증 입국 정지조치도 유지 중
- 해외 입국자 증가 시 행정 비용과 국민우려 등을 감안하여 특별입국 절차와 비자 강화 조치로 외국인 입국 감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 정책 기조를 유지

나. 공무와 상용여행의 제한적 트래블 버블

- 우리나라는 현재 입국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공무여행과 상용여행의 제한적 트래블 버블 시행 중
-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5개국과 신속통로(Fast la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과도 협의 중
 - 신속통로 대상국가의 선정기준은 알려진 바 없지만 우리 기업인들의 출장 수요가 많고 교역 상위국가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
- 신속통로 제도도 해당 국가의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으로 귀국 후에 자가 격리 14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 관련 업계에서는 트래블 버블 시행 요청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업, 여행업 등 관련 업계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음
- 이에 업계에서는 입국관리를 완화하는 해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여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업과 여행업에서 이러한 요구가 강하며 의료관광 업계에서도 의료관광 환자에 대한 입국통제 완화를 요청

- 업계 요청의 핵심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 국내 여행처럼 국제여행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

라. 의학계는 트래블 버블에 대해 신중한 입장

- 감염학,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트래블 버블의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
- 코로나19가 안정된 국가를 상대로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할 경우 해외감염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려의 이유
- 코로나19 백신 출시 전에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5. 우리나라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대비방향

가. 국제관광 재개 대응방향 원칙

- 국제관광 재개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각 단계(Phase)로 구분하여 시행
 - 前 단계의 성공적 완료 후 다음 단계로 진행
 - 각 단계에서 문제 발생 시 즉시 중단
 - 단계별 시행 필요사항 준비 및 검토

나. 단계별 개요 및 필요사항

1) 1단계(준비기)

- 국제관광 재개 시행을 위한 준비 시기: 관광분야 트래블 버블 시행
 - 관광목적의 여행을 허가하는 트래블 버블 시행을 위한 준비
- 코로나19 백신 출시 전에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협의 및 검토
- 트래블 버블 시행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및 사회적 공감대 필요

■ 방역기준, 관광기준, 외교기준 등에 대한 선정 기준 마련

〈표 1〉 트래블 버블 시행국가 선정기준(예시)

구분	검토사항	비고
방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상대국가의 코로나19 동향 (ex: 일일 평균 확진자 수) • 의료역량: 방역 및 치료 역량 • 정보 공개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동향 공개 및 일일 보고 - 일반인 접근 가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 전문가 자문 (감염의학 및 예방의학) - 질병관리청 협의
관광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상대국가와 우리나라 관광교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 버블 시행 시 관광산업 효과도 • 후보 상대국가 비자 필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비자면제 및 무비자 협정 중지 국가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바운드 시장 10위 안의 국가 바람직 - 법무부 비자 중지국가 리스트 확인
외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상대국가의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통제 정도 (전면적 통제면 불가능) • 신속통로(fast lane) 실시여부 • 상대국가의 관광목적 트래블 버블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 버블 협의 용이 국가

■ 국내 부처 협의 및 상대 국가 협의를 통하여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 및 구체적 시행방법 협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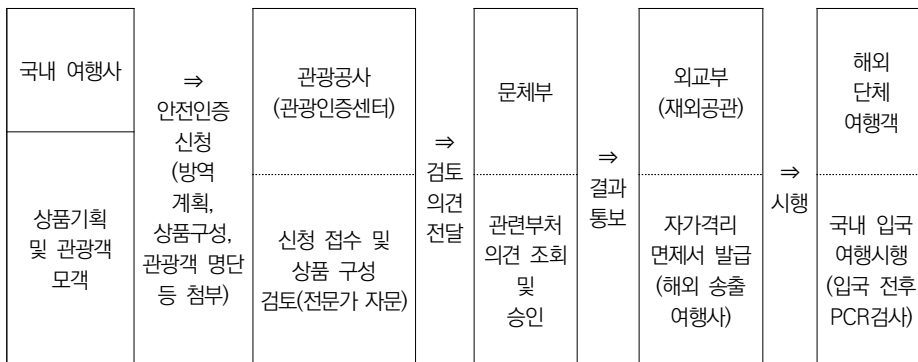
2) 2단계 (시범기)

- 트래블 버블의 시범적 운용을 통한 시행 시기
 - 준비 단계에서 선택된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적 시행 및 모니터링
- 코로나19 안전여행 상품(Korea Safe Travel Product) 문체부 인증
 - 트래블 버블 체결국가 단체 관광객 대상의 관광상품 인증
 - 방역계획, 관광코스 및 방문지, 숙소에 대한 문체부 안전 인증 상품에 대해서만 시행 허가
- 문체부-외교부 격리면제 요청
 - 안전여행 인증 상품에 대하여 문체부는 외교부를 통하여 시설격리 면제 추진
 - 관광객에게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및 인천공항 입국 시 코로나19 재검사

■ 시범운용과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

- 시범 운용 기간에는 Quota를 정해 실시
- 국내 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 및 인천공항 입국 후 재검사, 음성 확인 후 관광 실시

[그림 1] 트래블버블 안전관광 상품 허가 및 시행 절차



3) 3단계 (확장기)

- 안전여행 상품 성공적 시범 운용 후 관광 규모 확대
 - 시범실시 안전여행 상품 이용자에서 확진자 없을 경우 규모 확대 가능
- 코로나19 백신 시기에 따라 확장시기 촉진 가능
 - 2021년에 일반인 접종 가능 시 국제관광 확장 시기 앞당겨질 수 있음

〈표 2〉 코로나19 시기 단계적 국제관광 재개방향

구분	내용
1단계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계 의견수렴 및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업계 및 의학계 등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기초안 마련 • 기초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 • 국민의견 조사와 사회공감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광 재개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 조성 • 트래블 버블 시행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가 선정 기준(방역, 관광, 외교 기준) • 트래블버블 국가 및 세부 내용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국가 확정(관련부처 협의) - 대상 국가 의향 타진 및 세부사항 합의(Arrangement)
2단계 (시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안전여행 상품 문체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 버블 체결국가 단체 관광객 대상의 관광상품 인증 - 방역계획, 관광코스 및 방문지, 숙소에 대한 사전 검증(한국관광공사 및 관련 전문가 자문) - 해외상품은 현지 관광공사 지사 확인 ※ 소규모 단체 관광으로 실시 • 문체부-외교부 격리면제 시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여행 인증 상품에 대하여 문체부는 외교부를 통하여 시설격리 면제 추진 - 관광객에게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및 인천공항 입국 시 코로나19 재검사 • 시범운용과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운용 기간에는 Quota를 정해 실시 - 국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3단계 (확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여행 상품 성공적 운용 후 관광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상품 이용객에서 확진자 없을 경우 규모 확대 가능 • 코로나19 백신 시기에 따라 확장시기 촉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에 일반인 접종 가능 시 국제관광 재개의 확장 시기 앞당겨질 수 있음

6.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국제관광 재개동향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재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음
- 연구 결과 코로나19 면역여권은 백신 출시 이전에는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트래블 버블의 경우 이론적으로 국가 간 협의를 통하여 격리가 면제 되는 상호(Two-way)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경우 EU 회원국 간 경제적 연결성과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아 2020.7월부터 역외국가 13개국에게 국경을 개방하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해외 유입에 대한 방어 장치가 전혀 없어 해외유입 감염 위험이 높음
- 오세아니아의 경우 호주-뉴질랜드 간 일방적인 트래블 버블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행 외 비용이 높아 관광산업에 대한 효과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아시아의 경우는 국가별로 추진 상황이 다른데 싱가포르가 가장 활발하게 트래블 버블을 추진 중이며 태국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관광객을 우선 방문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03월부터 특별입국 조치로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관광목적의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로서는 아님
- 항공업, 여행업 등의 해외매출이 큰 관광업계에서는 트래블 버블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학계에서는 백신 출시 전에 국제관광의 재개에 대해서는 해외감염이 발생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업제와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반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관광목적의 트래블 버블의 시행을 사전에 각계 의견 수렴과 토론회,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트래블 버블의 의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보다는 향후 국제관광 재개에 대하여 사전 준비훈련에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임
- 트래블 버블의 시행은 준비기-시범기-확장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각 시기별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대처
- 준비기에서는 트래블 버블 대상국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국가를 정하고 해당 국가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확정
- 시범기에서는 해당상품에 대한 인증을 통해 문체부에서 승인을 하고 외교부의 협조를 거쳐 격리면제를 추진하되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등 안전 장치 마련
- 이후 시범 운용이 안전하게 3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 트래블 버블의 확장이 가능할 것임
- 결론적으로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의 도입 시 핵심은 격리기간의 면제(또는 완화)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방역정책(해외입국 관리정책)의 기초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의 면밀한 협의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임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연구 흐름도	7
 제2장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및 재개관련 주요 이슈	 9
제1절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11
1. 코로나19 추이	11
2. 코로나19 가 국제관광에 미친 영향	12
3. 코로나19 가 우리나라 국제관광에 미친 영향	14
제2절 국제관광 재개관련 이슈: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	16
1.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 등장 배경	16
2. 면역여권(Immunity Passport)	17
3.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2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25
1.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관광 위축	25
2. 코로나19 면역여권 실현 가능성	25
3. 트래블 버블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26

제3장 코로나19와 주요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동향 27

제1절 유럽	29
1. 코로나19 발생 후 유럽의 입국관리 동향	29
2. 프랑스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 동향	32
제2절 오세아니아	36
1. 오세아니아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36
2.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trans-Tasman Bubble)	37
제3절 아시아	40
1. 코로나19 발생 후 아시아의 입국관리 동향	40
2. 싱가포르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41
3. 대만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44
4. 태국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48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51
1. 코로나19 발생 후 입국통제 완화의 지역적 차이	51
2. 유럽의 국경개방과 코로나19 재확산	51
3. 호주-뉴질랜드 트래블버블 제한적 시행	52
4. 아시아의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 대응 차별화	53
5. 관광여행 목적의 트래블 버블 시행	54

제4장 우리나라 입국관리 동향과 국제관광 재개 의견조사 57

제1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입국관리 동향	59
1.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	59
2. <심각> 단계에 따른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60
3. 격리면제 조치와 신속입국 제도	62
제2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66
1.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66
2. 전문가 의견 조사	69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73
1. 우리나라 코로나19 입국관리 동향	73
2. 공무와 상용여행의 제한적 트래블 버블	73
3. 관련 업계에서는 트래블 버블 시행 요청	74
4. 전문가들은 트래블 버블에 대해 신중한 입장	74

제5장 우리나라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대비방향 75

제1절 연구결과 종합 77

1. 연구결과 종합 77

제2절 국제관광 재개 대응방향 79

1. 국제관광 재개 대응방향 원칙: 단계적 시행 79

2. 단계별 개요 및 필요사항 79

3. 주체별 역할 83

제6장 결론 및 제언 85

참고문헌 / 89

ABSTRACT / 91

표 목차

〈표 2-1〉 코로나19에 따른 지역별 국제관광객 감소 비율(2019년 대비)	12
〈표 2-2〉 우리나라 관광수입과 지출 동향	15
〈표 3-1〉 입국제한 해제조치 실시 유럽 국가현황 (한국 發 입국자 기준)	30
〈표 3-2〉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유형 (2020.11.11. 기준)	43
〈표 4-1〉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59
〈표 4-2〉 우리나라 주요 교역 대상국가 현황	65
〈표 5-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77
〈표 5-2〉 트래블 버블 시행국가 선정기준(예시)	81
〈표 5-3〉 코로나19 시기 단계적 국제관광 재개방향	84

그림 목차

[그림 2-1]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	11
[그림 2-2] 코로나19와 국제관광시장 시나리오	13
[그림 2-3] 코로나19와 방한관광 시장 추이	14
[그림 2-4] 코로나19와 국민해외관광객 추이	15
[그림 2-5] 코로나19 디지털 면역여권 작동원리	18
[그림 2-6] 소셜 버블의 구성과 확대	22
[그림 3-1] 유럽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31
[그림 3-2] 프랑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34
[그림 3-3] 호주와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38
[그림 3-4] 싱가포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42
[그림 3-5] 대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45
[그림 3-6] 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49
[그림 4-1] 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 범정부 대응체계 조직도	60
[그림 4-2]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 검역흐름도 (유증상자)	61
[그림 4-3]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 검역흐름도 (무증상자)	62
[그림 4-4]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절차(사업상 목적 및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자)	63
[그림 5-1] 트래블버블 안전관광 상품 허가 및 시행 절차	83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1. 연구 배경

가.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국제관광 위축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보고된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코로나19)는 2020년 3월부터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확산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을 벗어나 한국, 이탈리아, 이란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감염자가 급증하자 코로나19를 국지적 유행병(epidemic)이 아닌 세계적 유행병인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
- 코로나19로 국제관광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였으며 관광산업이 역대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음
 - WHO의 팬데믹 선포와 감염자 급증으로 각국은 국제여행 제한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국제관광 시장과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음

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각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에 대한 대응 상이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 상황이 대륙과 지역별로 차별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국경봉쇄와 여행제한이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함
 - 2020. 7월부터는 EU 회원국들이 역외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국경 개방 시작
 - EU 와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무, 기업 출장 등에 대해서만 여행을 허가하고 여전히 관광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

다. 국제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외국인 여행객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

- 현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치료제나 백신이 발명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 여행객들의 방역에 대한 이슈 등장
 - 이러한 이슈의 핵심은 외국인 여행객 관리에 대한 것으로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의한 지역 내 전파감염을 우려하기 때문임

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과 면역여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대비 필요

- 코로나19 시대의 안전한 국제 여행을 위한 방법으로 트래블 버블과 면역여권의 아이디어 등장
 - 현재로서는 입국 및 검역 관리에 대한 보편적이거나 통용되는 기준은 아직 없으며, 국가별로 상황 및 정책방침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가별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이지만, 관광재개와 관련하여 최근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는 이슈가 있는데, 트래블버블" 과 "면역여권"이 해당
 - "트래블 버블" 은 공간적 접근의 예방책, "면역여권" 은 기술적 접근의 예방책이지만 실행범위와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음
 -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재개를 준비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대에 국제관광 재개관련 동향 및 이슈 파악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제관광 재개대비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트래블 버블과 면역여권 개념 및 특징
 - 주요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 동향
 -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재개방향 및 단계별 방안 (트래블 버블 중심)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 6월 末 기준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시 그 이후 가능한 최신 자료를 반영

나.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관광재개와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륙별 주요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봄
 - 유럽: 프랑스
 - 오세아니아: 호주-뉴질랜드
 - 아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한국

다. 내용적 범위

-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영향
-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
- 코로나19와 해외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동향
- 우리나라의 입국관리 현황
- 우리나라 국제관광(인바운드) 재개방향 및 단계별 방안: 트래블 버블 중심

2.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 코로나19와 국제관광 관련 자료 검토
- 트래블 버블 및 면역여권 관련 자료 검토
- 국가별 코로나19현황 및 국제관광 재개동향 자료 검토
-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 참고자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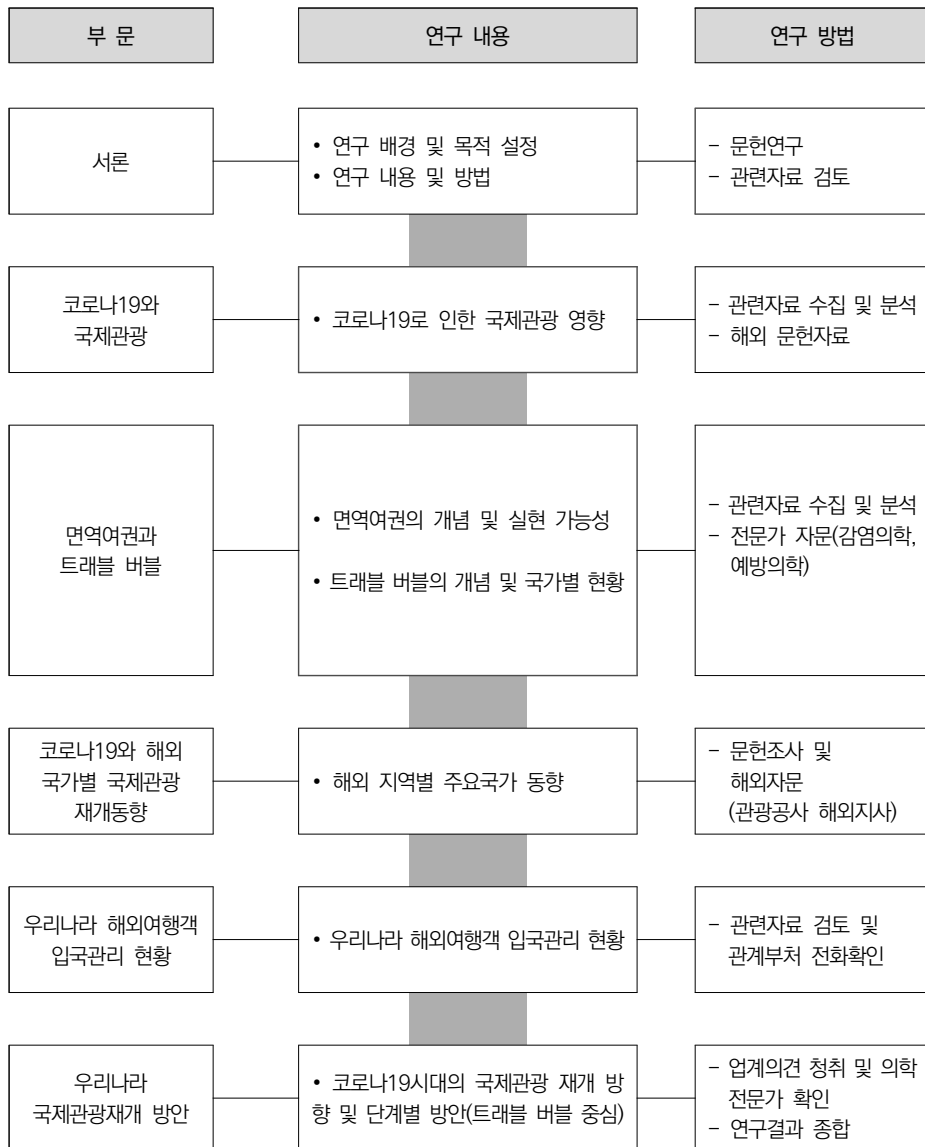
나. 국내외 전문가 자문

- 코로나19 관련 의학 전문가 자문: 감염의학 및 예방의학 교수
 - 코로나19 특성 및 관광가능 시점, 트래블버블 및 면역여권 실현 가능성
 - 일반 관광객 입국 시 격리 완화 가능 여부 등 자문
- 해외국가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 동향 자문: 관광공사 해외지사
 - 해외 주요 국가(프랑스, 대만 등) 코로나19현황 및 동향 자문
- 블록체인 전문가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면역여권 기능에 대한 자문

다. 업계 및 관련기관 간담회

-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 관련 업계, 관련기관 간담회
 - 항공업, 여행업, 의료관광 관계자(병의원 국제의료센터, 보건산업진흥원), 관광공사 등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정도와 트래블 버블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 정리

3. 연구 흐름도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제2장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및 재개관련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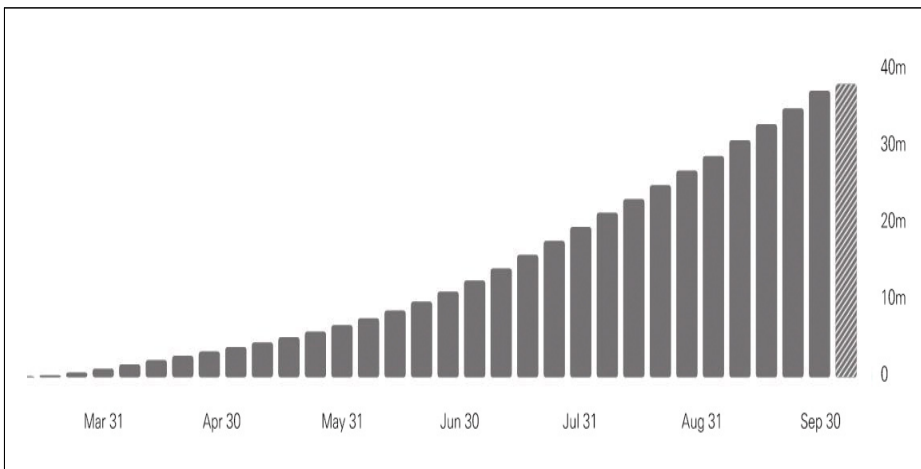
제1절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1. 코로나19 추이

가. 중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 계속 확진자 증가추세

- 중국에서 시작, 아시아,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전파
 - 2020.9. 30 기준으로 전 세계 45,523,083 명 확진, 1,186,596 명 사망
 - 누적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북반구 겨울철에 따른 2차 확산 우려 커짐

[그림 2-1]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



출처: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사이트 (<https://covid19.who.int/>)

나. 여름 휴가철 이후 지역별 2차 확산 조짐

- 미국, 유럽 지역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
 - 여름 휴가철 이후 느슨한 방역관리로 미주, 유럽 지역의 신규 확진자 증가
 - 9월 들어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음
 - 겨울철로 갈수록 2차 확산의 규모가 더욱 커질 우려

2. 코로나19 가 국제관광에 미친 영향

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국제관광객 -65% 감소

- 세계관광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 세계 국제 관광객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이 전년 동기 대비 -65% , 숫자로는 약 4억 3천 8백만 명이 감소
 - 국제관광의 성장이 빠르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2%로 가장 큰 타격

〈표 2-1〉 코로나19에 따른 지역별 국제관광객 감소 비율(2019년 대비)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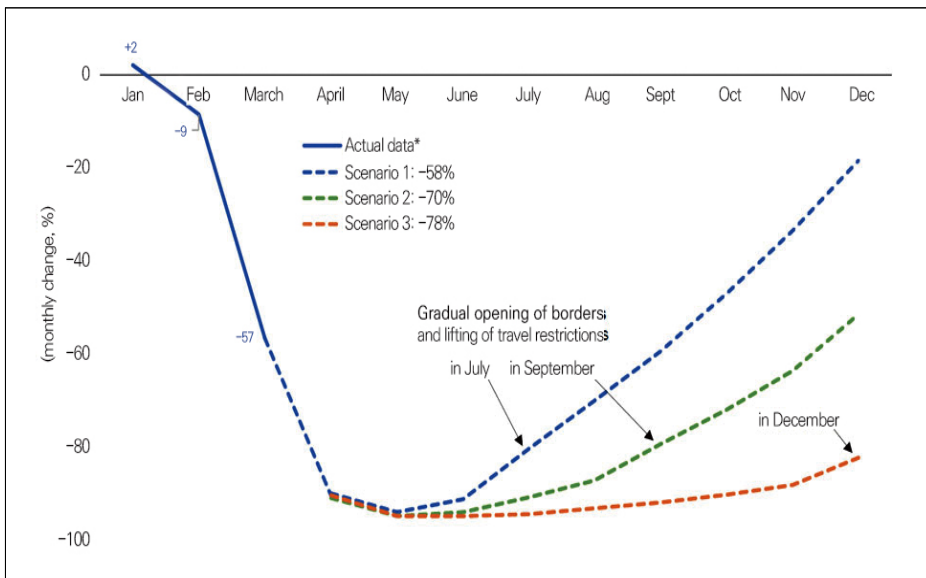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반년 평균 (감소 관광객 숫자)
유럽	5	2	-61	-98	-96	-90	-66(-212,118)
아시아·태평양	-5	-51	-82	-99	-99	-99	-72(-130,569)
아메리카	0	3	-49	-94	-93	-92	-55(-59,001)
아프리카	2	1	-43	-99	-99	-99	-57(-18,051)
중동	5	-25	-45	-94	-94	-94	-57(-19,188)
전 세계	1	-16	-64	-97	-96	-93	-65(-438,927)

출처: UNWTO(2020), <https://www.unwto.org/international-tourism-and-covid-19>

나. UNWTO 예측보다 더 악화로 나타난 국제관광 수치

- 세계관광기구(UNWTO)가 제시한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시나리오
 - UNWTO 에서는 국경개방과 여행 제한 해제 시기에 따라 국제관광객 감소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
 - 국경의 순차적 개방시기를 각각 7월, 9월, 12월로 잡고 그 영향을 각각 -58%, -70%, -78%로 예측¹⁾

[그림 2-2] 코로나19와 국제관광시장 시나리오



출처: 세계관광기구(UNWTO, 2020)

- 예측 수치보다 코로나19가 국제관광에 미친 영향이 더 악화되어 나타남
 - <표 2-1>의 결과에서 보듯이 2020년 6월까지 세계 국제관광객의 수치는 -65%가 감소하여 UNWTO가 예측했던 -58%보다 더 악화된 결과
 - 이러한 추세로 갈 경우 예측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1) UNWTO Press Release, 2020.05.07. "INTERNATIONAL TOURIST NUMBERS COULD FALL 60-80% IN 2020, UNWTO REPORTS."

다.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국제관광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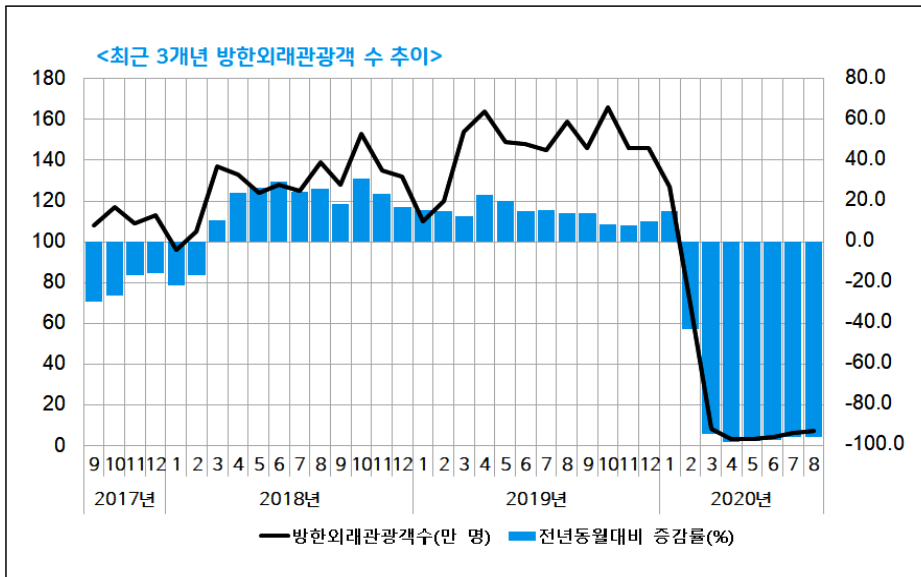
- 유럽, 북미 지역에 신규 확진자 9월 이후 급증
 - 9월 이후 다시 유럽과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확산이 증가하면서 관광재개 시점이 계속 늦어져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

3. 코로나19 가 우리나라 국제관광에 미친 영향

가. 입국통제에 따른 방한 외래 관광객 대폭 감소

- 우리나라도 2월부터 입국 통제에 따라 방한 외래 관광객이 크게 감소함
 - 2020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80% 감소

[그림 2-3] 코로나19와 방한관광 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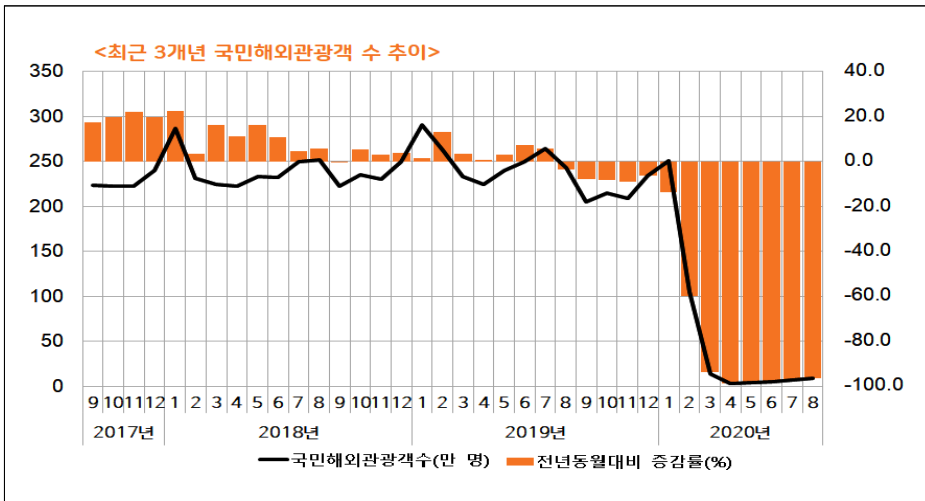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년 8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나. 국민 해외여행객도 대폭 감소

-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도 코로나19로 대폭 감소
 - 2020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

[그림 2-4] 코로나19와 국민해외관광객 추이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년 8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다. 국제관광 위축에 따라 관광수입과 지출이 모두 감소

- 인·아웃바운드 시장의 동시 위축에 따른 관광소비 감소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관광 제한에 따라 인·아웃바운드 모두 타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제관광 소비의 위축도 길어지고 있음

〈표 2-2〉 우리나라 관광수입과 지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년도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2017년	13,264	27,960	-14,696
2018년	18,462	31,528	-13,066
2019년(잠정치)	21,506	28,855	-7,349
2020년 8월 기준(잠정치)	5,652	7,861	-2,209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년 8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수정 (원 자료: 한국은행)

제2절 국제관광 재개관련 이슈: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

1.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 등장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공존 시대(With Corona era)”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 논의 시작
 - 코로나19 발생 초기만 해도 과거 사스(SARS)나 메르스(MERS)처럼 일부지역 확산에 그치거나 조기종식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음²⁾
 -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파됨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팬데믹 이후에도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으며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공간적, 시간적 영향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이후(Post-Corona)가 아닌 코로나와 공존하는 ‘코로나 공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국제관광과 관련하여 등장한 ‘면역여권’ 과 ‘트래블 버블’ 이슈는 이러한 “코로나 공존” 시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그 등장 배경임
 - 즉 ‘면역여권’ 과 ‘트래블 버블’ 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관련 산업침체와 경제 위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산업적 필요에서 의해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세계보건기구의 바이러스 종식 기준에 따르면, 바이러스 잠복기의 2배가 경과되는 시점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없을 경우 해당 바이러스는 종식된다. 즉 최대 잠복기가 14일이면 28일간 신규 확진환자 발생이 없어야 해당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WHO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적용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2. 면역여권(Immunity Passport)

가. 개념

- 면역여권은 광의(廣義)개념과 협의(狹義) 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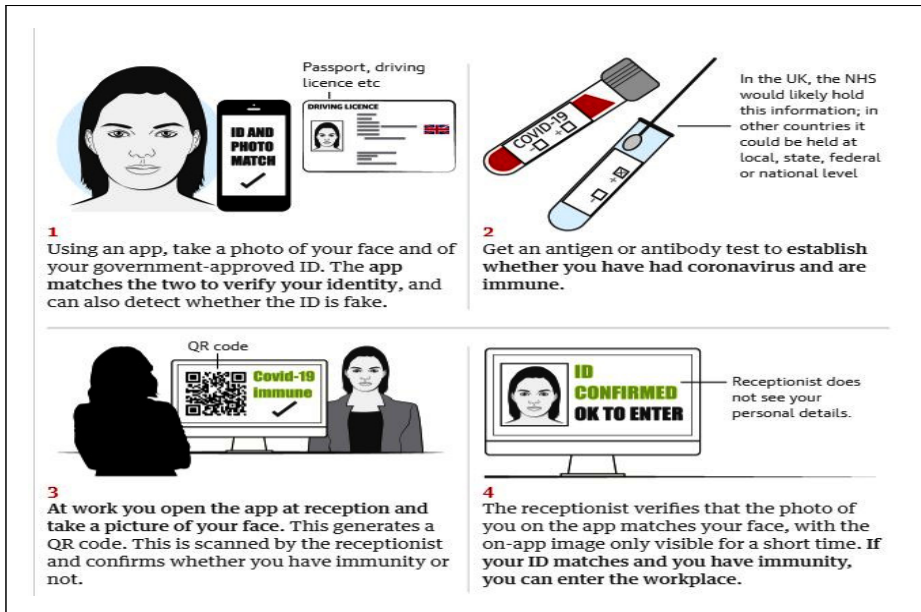
1) 광의 개념의 면역여권 (일반적 의미)

- 감염성 질병(contagious disease)에 대한 면역 보유 증명 서류
 - 면역 여권은 해당 여권의 보유자가 특정한 감염병에 대해 면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즉 항체(antibody)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
 - 건강여권(Health passport)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개인의 건강 상황을 알려주는 건강기록부(PHR: Personal Health Record)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명칭은 잘 사용되지는 않음
 - 면역 여권에서의 중점은 ‘면역(immunity)’에 있으며 여권이라는 것은 국제여행에 사용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실질적인 의미는 증명서류
- 실제로 사용되는 면역여권은 예방접종 증명서
 -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은 1) 감염 후 회복을 통해 항체가 형성되거나 2)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되는 두 종류
 - 유행성 감염병을 앓고 회복된 환자에게 항체 보유 증명서(release document)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없음
 - 실제로 사용되는 면역여권은 특정 지역을 방문할 때 요구되는 풍토병에 대한 예방접종 증명서임
 -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방문 시 황열병이나 콜레라 등에 백신접종 후 발급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들 수 있음
 - 해외여행자는 출국 전에 예방접종 후 증명서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 방문 시 입국심사 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

2) 협의 개념의 면역여권 (코로나19 관련 의미)

- 코로나19 면역 증명서(항체 보유 증명서)
 -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면역여권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보유를 증명하는 협의의 의미임
- 코로나19 에 따른 경제 침체를 감소하기 위한 제안 차원
 - 코로나19 면역여권에 대한 의학계가 아닌 정치권에서 시작
 - 캄보디아 정치인 Sam Rainsy 의 기고문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칠레, 핀란드, 독일,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 관심을 포함³⁾
- 디지털 신분증명(digital identification)을 통한 코로나19 면역여권 제안도 등장
 - 코로나19 항체정보를 담은 디지털 면역여권이 Tech 기업들에 의해 제안
 - 영국의 Tech 기업 오피도(Onfido)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면역여권을 영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힘(그림 2-5)

[그림 2-5] 코로나19 디지털 면역여권 작동원리



출처: The Guardian, 2020.05.04.⁴⁾

3) https://en.wikipedia.org/wiki/Immunity_passport

- 국제 NGO <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면역여권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기 위하여 “커먼패스(Common Pass)” 도입을 제안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간 시스템 호환의 문제와 정보 공유, 기술 격차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

※ 참고: 커먼 패스(Common Pass)

- 커먼패스는 비영리재단 <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에서 제안한 디지털 건강여권(Digital Health Pass)을 말함
 - ‘커먼패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의 코로나19 검진기록, 판정결과, 백신접종 여부 등을 기록하여 향후 국제여행에 사용
 - 현재의 PCR 테스트 결과는 국가별, 또한 검진기관별로 그 발급형식이 다르고 종이 증명서로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디지털화하고 암호화시키면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
 - 이러한 커먼 패스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디지털 면역여권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블록 체인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
 - 차이점은 커먼패스의 운영시스템이 기업이 아닌 비영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성을 배제한다는 장점을 내세움
- 항공업계에서는 ‘커먼패스’ 도입을 통해 현재의 입국관리 방식을 개선할 것을 주장
 - 세계 3대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skyteam), 스타얼라이언스(staralliance), 원월드(oneworld)에서는 2020.11.11. 공동 성명을 내고 ‘커먼패스’와 같은 디지털 건강여권(digital health pass)의 도입과 시범시행을 각국 정부들에 제안⁵⁾

나. 코로나19 면역여권에 대한 논란

-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 입장
 - 일반적으로 항체보유자가 특정감염성 질환에 대해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⁶⁾
 - 1) 회복환자가 재감염 되지 않을 것
 - 2) 면역력이 장기간 지속될 것
 - 3) 바이러스 변종의 속도가 늦을 것
 - 4) 면역테스트(항체 보유검사) 실패율이 낮을 것

4) Coronavirus UK: health passports 'possible in month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0/may/03/coronavirus-health-passports-for-uk-possible-in-months>

5) <https://www.staralliance.com/ko/news-article?newsArticleId=4317249&groupId=20184>

6) https://en.wikipedia.org/wiki/Immunity_passport

-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회복에 관해서는 위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data 도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이유로 의학계에서는 회의적 입장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면역여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
 - WHO는 코로나19 면역여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부정적 입장을 발표(2020.04.24.)
 - “일부 정보들이 면역여권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환자들이 재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음”⁷⁾
- 사회적 관점에서도 코로나19면역 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음
 - 생명윤리학(Bioethics)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면역여권 아이디어에 대하여 의학적 관점에서도 불확실한 제안이지만 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개인의 의학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 항체 보유 검사 및 면역 증명서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제적 소외계층의 배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역여권 보다는 집단의 검사와 보건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다. 코로나19 면역여권과 백신개발

- 코로나19 면역여권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실화될 가능성 낮음
 - 의학적 신뢰성, 사회적 논란 등으로 코로나19면역여권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코로나19 면역여권이 사용될 수 있는 단계는 현재 국제여행에 사용되는 백신접종 증명서와 같은 형태가 가능할 시기일 것임

7) WHO Scientific Brief: <https://www.who.int/news-room/commentaries/detail/immunity-passports-in-the-context-of-covid-19>

-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백신의 안정성과 항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국제여행 시 접종 증명서 보유 의무화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
- 백신 개발 전까지는 현재의 PCR 검사가 유지될 것임
 - 현재 각국에서는 입국자들에게 유전자증폭(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 이 검사는 항체 보유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임
 - 즉 현재 각국의 방역관리는 국제 여행객들의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체크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
 - 백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백신 접종 증명서가 통용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PCR 검사를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3.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가. 개념

-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지역) 간의 여행 안전지대
 -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각 국가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다수와의 접촉을 피하고 작은 “소셜 버블(사회적 교류 안전막)” 유지 권고⁸⁾ 이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소셜버블의 접촉 범위 확대 가능
 - 트래블 버블은 이러한 소셜 버블이 단일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 감염 우려가 적고 안전이 검증된 특정 국가 간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함

8) 여기서 Bubble 은 경제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거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재난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구역을 의미함.

[그림 2-6] 소셜 버블의 구성과 확대



출처: Alaska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

-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등장
-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한 개방은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국가에게 입국제한을 완화하고 항공, 여행업 등 관련 산업의 부분적 복원 도모
- 트래블 버블은 Travel Corridor, Travel Bridge 의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음

나. 트래블 버블의 실제 운영

■ 트래블 버블의 구성 요건

- 트래블 버블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함

1) 국가 간 협의를 통한 상호 조치

: 버블은 상호(Two-way)적인 것으로 국가 간 협의를 통하여 취해지는 것)

2) 적용 대상 (공무여행, 상용여행, 관광여행 등) 협의

: Travel Bubble 은 여행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여행까지 완화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국가별로 다름

3) 완화 정도 (PCR 테스트 의무화, 자가격리 기간 등) 협의

: 상대 국가로부터 여행객이 입국 할 때 PCR 테스트 결과 제출 여부와 자가격리 기간 완화 정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함

- 관광목적의 여행까지 포함한 트래블 버블은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음
 - 언론에서는 트래블 버블이 체결되면 양국 간에 자유로운 관광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그 적용 대상과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함
 - 현재 상호 작용하고 있는 트래블 버블은 공무 여행과 상용 여행에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도 입국 시에만 자가격리 면제이고 귀국 후에는 자각 격리 적용이 원칙임
 - 2020. 9월까지
 1. 일반 관광객까지 포함하여
 2. 일방적 개방이 아닌 상호 개방을 통해
 3. 관광 목적을 포함한 Travel Bubble (Including the trip of leisure purpose)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대만에서는 용어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
 - 대만은 트래블버블과 관련하여 공무여행과 비즈니스 여행, 관광여행을 각각 구분
 - 공무목적의 트래블버블은 外交泡泡(와이지아오파오파오), 비즈니스 목적의 트래블버블은 商務泡泡(상우파오파오). 관광목적의 트래블버블은 旅遊泡泡(요우파오파오)로 분류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교협정(agreement)이 아닌 상호 협의(arrangement)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방적 중단 가능

9) 트래블 버블은 상호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협약이 아닌 협의를 통한 편의제공(arrangement)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상대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이 가능하게 추진

다. 트래블 버블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가 핵심사항

■ 명확한 설정 기준 부재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사회적 격리 지침이 바뀌는 것처럼 트래블 버블의 기준과 방법도 유동적이며,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어떤 국가들을 트래블 버블의 대상으로 정하느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
- 트래블 버블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비자와 같이 상호 적용하는 것이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자국의 국경을 먼저 개방하고 있는 상황
- 입국 전후로 면역여권이나 코로나19 감염검사에 대한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자가 기입 설문만 하는 경우도 있어 그 적용방법도 국가별로 다름

■ 적용국가와 대상 설정에 대하여 관련 부처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 필요

- 트래블 버블은 관련 부처와 의학계, 산업계 등 각자의 시각에 따라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여행에 대한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와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 관련 부처별 협의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함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관광 위축

-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 되면서 국제관광 부분의 타격이 커지고 있음
- 과거 사스, 메르스와 달리 감염 지역, 감염자 추이 등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관광산업의 피해도 글로벌화
- 코로나19 발생 당시 세계관광기구에서 예측한 시나리오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관광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가장 최악(Worst) 시나리오 발생 가능성 높아짐
- 우리나라 국제관광 시장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 코로나19 면역여권 실현 가능성

-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이들에게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하고 이들에게는 여행을 허가하자는 코로나19 면역여권 아이디어가 등장
- 그러나 의학적 신뢰도 부족, 사회 윤리적 문제, 국제기술 호환 문제 등으로 코로나19면역여권이 당장 사용될 가능성은 낮음
- 향후에 국제예방접종증명서처럼 코로나19 면역여권이 사용되려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일반인들이 이를 대부분 접종한 이후에나 가능

3. 트래블 버블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에서 등장
- 방역이 우수한 국가들끼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상대 국가에게는 입국관리를 완화시켜 제한적인 형태의 국제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트래블 버블임
 - 양 국가 간 협의를 거쳐 양방향으로 입국관리 완화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이론적인 트래블 버블
 - 여행의 종류인 공무여행(official travel), 상용여행(business travel), 관광 여행(leisure travel) 등 적용 대상은 다름
- 트래블 버블은 관광 형태의 여행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완화 정도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입출국 전후에 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 검사 여부, 입국 후 시설격리, 귀국 후 자각격리 등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
 - 언론 등에 트래블 버블이 시작하면 코로나19 발생 전처럼 무조건 자유로운 국제 관광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트래블 버블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
 - 각 국가별 상황과 트래블 버블의 적용에 대해 좀 더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제3장

코로나19와 주요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동향

제1절 유럽

1. 코로나19 발생 후 유럽의 입국관리 동향

가. 유럽연합의 특성에 따른 느슨한 국경통제

- 국경통제에 소극적이었던 코로나19 발생 초기
 - 유럽은 여러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가 간 이동이 잦고 국경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웃 국가로의 통근도 흔함
 - 또한 단일시장과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EU 회원국들 간에는 국경 완전 개방¹⁰⁾
 -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시에도 불필요한 여행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기는 하였지만 북미, 아시아, 대양주와 다르게 국경통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음
- Non-EU 국가들에 대해서만 입국 통제 실시(2020.03)
 - 3월 이후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유럽도 30일간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Non-EU 국가들에 대한 것 이었고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들은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유럽의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유럽 연합 탄생 후 국가 간 이동이 더 잦아지고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음

10) 유럽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을 두고 있다. 현재 쉥겐 조약에는 EU 회원국 이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도 참여하고 있다.

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역외 국가들에 대한 EU 입국 제한 해제

- EU 집행위원회에서 국경개방에 대한 논의 시작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Non-EU 국가들에 대해 국경을 통제했지만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유럽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자 국경개방에 대해 5월부터 논의하기 시작
 - 2020.06.05.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¹¹⁾에서는 7월부터 EU 역외 국가들에 대한 여행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힘
- EU 집행위원회, 회원국들에게 2020, 7월부터 국경개방 권고¹²⁾
 -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한국, 일본, 태국, 중국¹³⁾, 조지아,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13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해제권고
 - 해당 국가의 명단을 발표할 당시 국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EU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양호한 국가라고만 언급
 - 다만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관찰하여 입국제한 해제 국가의 명단을 2주마다 갱신하기로 함
 - EU 집행위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EU 권고에 따라 국경을 개방하였으며 비 EU 회원국들 중에도 개방한 나라 있음

〈표 3-1〉 입국제한 해제조치 실시 유럽 국가현황 (한국 發 입국자 기준)

구분	국가 (해제 시기)
유럽	그리스(7.1.), 네덜란드(7.1.), 라트비아(7.1.), 루마니아(8.5), 룩셈부르크(7.1.), 리히텐슈타인(7.20.), 몬테네그로(5.30.), 몰타(7.11.), 벨기에(9.23), 북마케도니아(6.26.), 불가리아(7.16.), 사이프러스(4.20.), 세르비아(5.22.), 스위스(7.20.), 슬로바키아(7.6.), 슬로베니아(9.29.), 알바니아(7.1.), 에스토니아(7.6.), 오스트리아(9.28.) 우즈베키스탄(9.21.), 체코(7.13.), 터키(6.11.), 포르투갈(7.1.), 폴란드(7.3.), 프랑스(7.3.), 핀란드(7.27.)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정보(2020.10.24 기준) 발췌, 연구자 정리 (밑줄 국가는 비 EU 회원국)

11)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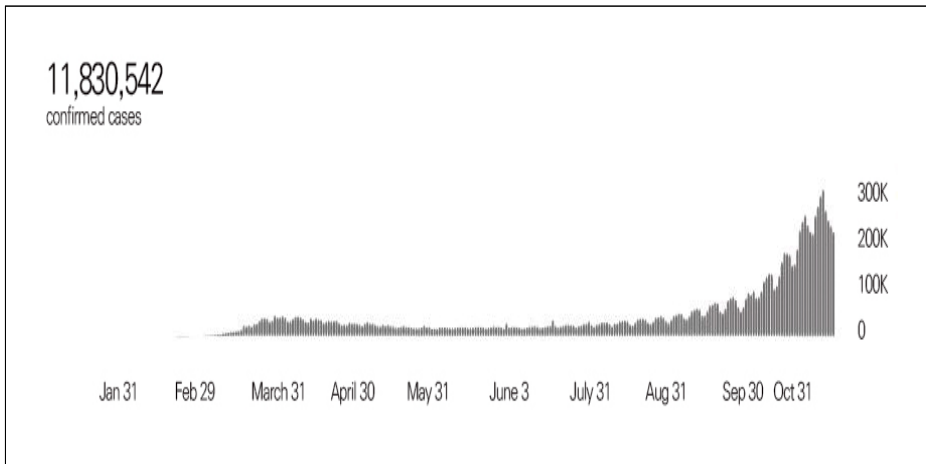
1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https://www.consilium.europa.eu/>) 정리

13) 단, 중국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의 중국 여행을 허용하면 EU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

다. 9월 이후 유럽 지역에 코로나19 2차 확산 증가

- 휴가시즌 종료와 학교 개학 등에 따라 유럽의 코로나19 2차 확산
 - 스페인, 프랑스 등 주요 관광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함
 - 10월에 스페인이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누적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이후 프랑스도 100만 명을 돌파
 -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등도 일일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 유럽 지역이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른 위기를 맞고 있음
 - 2020.10 월 확진자 폭증에 따라 프랑스, 독일 등 2차 대봉쇄 실시
 - 2020.10월 말 유럽 전체 누적 확진자 1,100만 돌파

[그림 3-1] 유럽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https://covid19.who.int/>)

2. 프랑스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 동향

가. 코로나19 입국관리 현황¹⁴⁾

- 7월 3일부터 11개 EU 역외 국가에 입국 제한 해제
 - 프랑스는 EU 집행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11개 EU 역외 국가들에 대해 입국 제한을 7월 3일부터 해제함¹⁵⁾
 - 단, 여기서 국경통제 해제는 해당 국가의 국적자 기준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체류, 출발하는 것이 기준 (ex: 미국 체류 한국여권 소지자는 프랑스 입국불가, 한국체류 미국여권 소지자는 입국 가능)
 - 국적에 관계없이 해제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도착 시 PCR 테스트 및 자가격리 필요 없음¹⁶⁾
 -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무증상 자술서만 제출하면 됨
 -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단기방문 시 기존처럼 무비자 프랑스 입국 가능
- 코로나19 확산 위험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외적 여행 필요 증명, 심각 국가는 증명서 이외 사전 검진 및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 입국이 허가된 11개국 以外 국가들은 프랑스 방문 시 예외적 여행 필요 증명서(certificate of exceptional travel)를 제출하여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레인,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 미국, 적도기니,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키르기스스탄, 코소보, 쿠웨이트,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멕시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오만, 파나마, 페루, 카타르,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터키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예외적 여행 필요 증명서 이외에도 출발 72시간 이내 사전 PCR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14) 주한 프랑스대사관, 프랑스 한국대사관, 프랑스 내무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15) EU 권고 국가 중 프랑스와 알제리는 코로나19 안전국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시킴. 중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외.

16) 주한 프랑스 대사관 안내

- 만일 출발국에서 PCR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프랑스 도착 시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 시 14일 강제 격리조치

나. 프랑스 입국제한 일부국가 해제와 트래블 버블

- 프랑스의 EU 역외 11개 국가에 대한 입국 해제는 트래블 버블의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음
 - 프랑스가 실시한 입국 제한 해제 조치는 특정 국가와 협의를 통한 것이 아니라 EU의 권고사항에 따른 다수 국가에 대한 조치
 - 또한 입국 제한 해제가 양방향(Two-way)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대해서 여전히 입국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방문 무비자도 중지된 상황임)
 - 이러한 이유들로 프랑스의 입국제한 해제는 트래블 버블의 사례로 볼 수 없음
- 입국제한을 풀면서 별도의 검역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방역관점에서도 매우 느슨함
 - PCR 테스트 결과나 발열 체크도 없이 무증상 자술서만 요구하고 있음

다. 프랑스의 입국제한 해제와 국제관광 효과¹⁷⁾

- 프랑스의 EU 역외 국가들에 대한 입국 해제 조치 성과는 미지수
 - 프랑스는 EU 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11개 역외 국가들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해제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프랑스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여전히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 하고 있어 해제 대상 EU 역외 국가들의 프랑스 방문효과는 높지 않음
 - 실제로 프랑스 언론에서도 프랑스의 입국제한 해제조치는 역외 국가들로부터 프랑스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프랑스 관광이 안전하다는 일종의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고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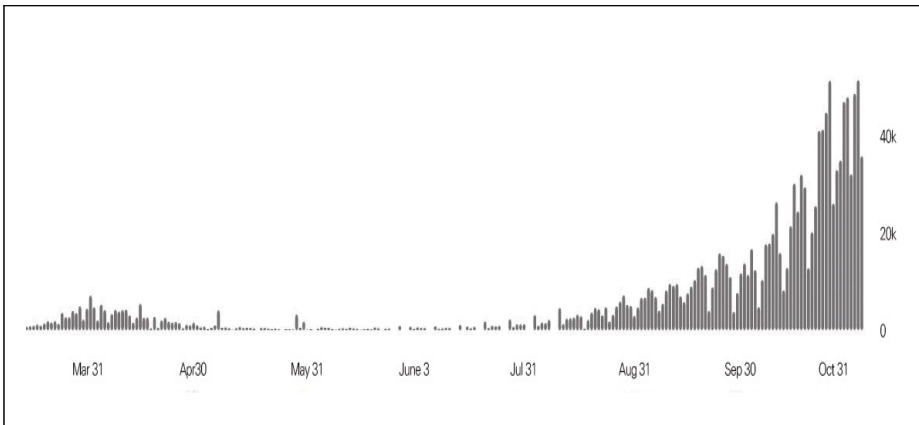
17)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 자문

- 이번 여름철 프랑스 관광캠페인도 국내관광 진흥과 EU 주변 국가에 초점을 둠
 -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프랑스 국내관광 캠페인을 펼침: “Cet Ete, Je Visite la France(This summer, I am visiting France)”
 - 이 관광 캠페인은 바캉스 시즌을 맞아 프랑스인들에게 해외 여행보다는 프랑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같은 프랑스 인접 국가들의 프랑스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
 - 프랑스인의 53%가 여름휴가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여행을 실시하였는데, 이 여행객의 94%가 국내여행

라. 부작용: 코로나19 2차 확산 급증

- 프랑스 내 관광객 이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2차 확산도 증가
 - 바캉스 시즌이 끝나고 9월부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일일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하였고, 전체 누적 확진자 1백만 명을 넘었음

[그림 3-2] 프랑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https://covid19.who.int/>)

- 프랑스 發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 및 프랑스 야간 통행금지 실시¹⁸⁾
 - 영국, 네덜란드 등 같은 EU 회원국에서도 프랑스 發 입국자들에게 격리 의무 조치 실시
 - 9월과 10월을 거치면서 프랑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0.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리 포함 프랑스 9개 지역, 16개주에 4주간 야간통금(21:00-06:00)을 10.17(토) 자정부터 실시한다고 발표¹⁹⁾
 - 이후 10월 23일 프랑스 카스텍스 총리는 통행금지 지역을 16개주에서 54개주로 확대발표
 -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10.29 프랑스 2차 봉쇄(Lockdown)

18)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안내 자료 정리

19) 통금 해당지역: 파리, 일드프랑스, 그르노블, 릴, 리옹, 엑스-마르세유, 몽펠리에, 루앙, 생테티엔, 툴루즈

제2절 오세아니아

1. 오세아니아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가. 지리적 특성과 국경조기 차단으로 코로나19 피해 덜함

- 대륙에서 떨어진 지리적 위치로 코로나19 피해 적어
 -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등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 국가들을 가리킴²⁰⁾
 - 이들 국가들은 유럽, 아시아 등의 인구밀도가 높은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주 인구도 많지 않아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을 조기에 차단하고 입국 통제 실시
 - 코로나 발생 초기인 3월부터 호주,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통제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였음
 -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작은 섬 국가들의 경우는 방역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음²¹⁾
 - 호주와 뉴질랜드도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매우 보수적인 국경 통제 및 대도시 봉쇄(Lockdown)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관리 유지
 - 다만 호주의 경우 7월에 해외에서 귀국한 호주인들에 의한 해외 감염이 남반구 겨울을 맞이하여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대로 증가하고 멜버른이 2차 봉쇄에 들어가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음
 - 10월에 들어서는 호주도 다시 안정세에 진입

20) 나우루, 뉴질랜드,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사모아, 솔로몬제도, 오스트레일리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폴리네시아, 피지

21) 2020.3.21. 이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투발루 등)

나. 국제관광 재개에는 신중한 태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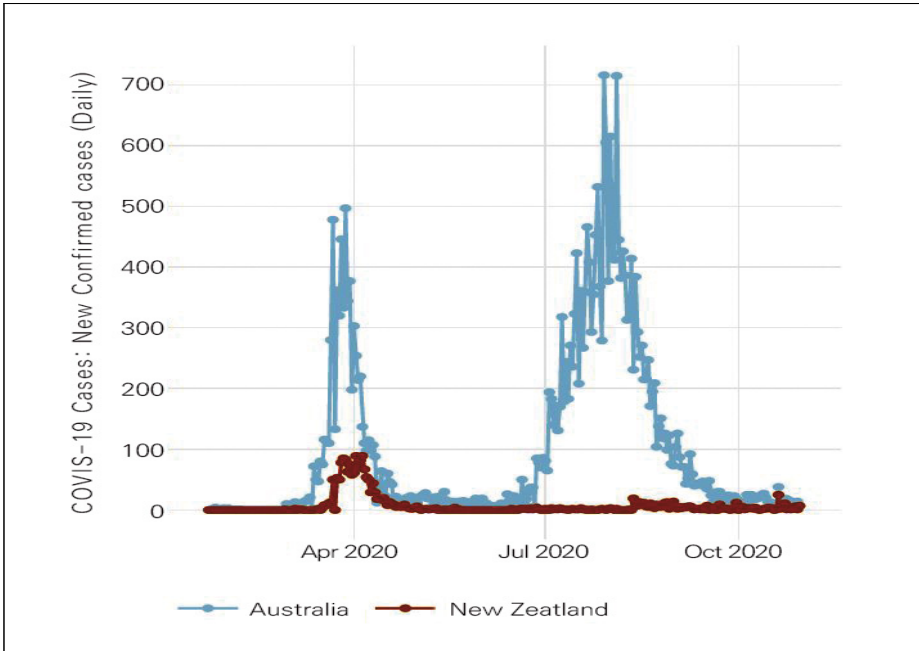
- 관광산업 의존도 높지만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대한 우려로 관광재개에 신중
 -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 국가들은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로 청정자연에 의존하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음
 -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천연자원 수출이나 목축업이 있지만 관광산업 비중이 높음
 - 그러나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다른 대륙 지역에서의 코로나19가 여름 이후 2차 확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국제관광 재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trans-Tasman Bubble)

가. 추진 경과

- 2020.05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0.16부터 제한적 트래블 버블 개시
 - 호주와 뉴질랜드의 트래블 버블은 양국 간에 있는 타스만 해협을 의미하며 “trans-Tasman Bubble”로 불림
 -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리적 근접성, 같은 영 연방 국가, 산업적 상호 의존 등으로 잦은 인적 교류를 가지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음
 -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6월부터 양국 정상 간에 트래블 버블 논의가 시작되었음
 - 뉴질랜드는 6월에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이 되었지만 7월에 호주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트래블 버블의 시행은 계속 지연되다 호주 상황이 안정된 10월부터 재 논의하여 제한적 트래블 버블 합의
 - 이후 10월 16일부터 뉴질랜드에서 호주로의 제한적 여행 개시

[그림 3-3] 호주와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World Bank 코로나19현황(<http://datatopics.worldbank.org/universal-health-coverage/coronavirus/>)

나. 운영형태

- 뉴질랜드 -> 호주 일부 지역으로의 입국만 가능
 - 10.16.부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 州,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뉴질랜드 체류 외국인도 가능함. 국적이 아닌 뉴질랜드 거주가 기준)
 - 입국 전 최소 14일간 뉴질랜드 체류 사실 입증 필요
 - 10.20 부터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SA) 州 도 국경을 개방하여 현재 호주 지역 중 2개 주와 1개 준주에 뉴질랜드로부터의 방문이 가능²²⁾
 - 호주는 넓은 국토에 따라 지역별 코로나 상황이 차별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개방지역은 유동적

22) 호주는 6개주, 2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음.

- 호주 방문 후 뉴질랜드로 귀국 시에는 2주간 시설 격리 의무 유지
 - 뉴질랜드에서 호주 방문 시 격리가 면제되지만 호주에서 돌아올 경우에는 지정시설에서 2주간 격리가 여전히 적용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임²³⁾
 - 2주간 시설 격리와 격리비용에 대한 부담 및 양방향(One-way) 조치인 단점으로 관광목적의 이용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현지에서는 예상하고 있음²⁴⁾

23) 1인당 부담 격리비용 3100 호주 달러(한화 약 230만원), 이외 추가되는 성인 1명당 \$950, 그리고 어린이 1명당 \$475 호주 달러 부과

24) 이 제도의 실제 이용자는 관광객들보다 그동안 출국이 어려웠던 뉴질랜드 거주 호주인들이나 호주에 단기 취업을 희망하는 뉴질랜드 인으로 예상되고 있음 (2020.10.12.Stuff News Site:
<https://www.stuff.co.nz/travel/news/300130425/its-not-really-a-bubble-few-kiwis-set-to-make-use-of-limited-transtasman-travel>)

제3절 아시아

1. 코로나19 발생 후 아시아의 입국관리 동향

가. 중국 발원과 사스 경험에 따른 코로나19 입국관리 강화

- 발생 국가인 중국과 인접하여 통제 초기부터 강화
 - 코로나19 발생 근원지인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카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국)
 -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경제, 문화적 교류가 잦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는 차이나타운과 같은 중국인 집단 거주자들이 있음
- 과거 사스의 경험에 따른 조치
 -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도 코로나19처럼 중국에서 발생하였으며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 국가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감
 -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달리 일찍 국경통제를 실시함

나. 유럽과 다르게 여전히 입국 제한조치 유지

- 공무, 비즈니스 출장 등만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 면제
 -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 다르게 여전히 외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있음
 - 공무목적과 급한 비즈니스 출장에 대해서만 사전 허가에 따라 제한적으로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도 국가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
 -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은 국제여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수적 기조 유지

다. 일부 국가에서 관광 목적의 트래블 버블 준비 중이나 대부분 보수적

- 트래블 버블의 논의는 많았지만, 실현된 경우는 드물
 - 코로나19가 확산이 주춤하기 시작한 2020년 6월부터 아시아에서도 동남아 지역 관광지 국가(tourism destination country)로 유명한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언론 등에 보도되었음
 - 또한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바운드 비중이 작지만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대만에서도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싱가포르가 가장 활발하게 트래블 버블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 목적의 트래블 버블도 홍콩과 합의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고, 외국으로부터의 유입에 따른 제2차 확산을 우려해 논의는 많지만 시행은 보수적 국가들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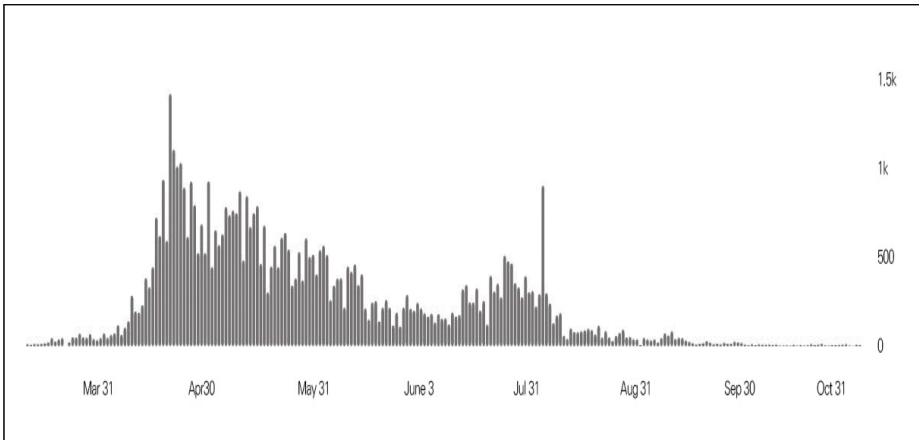
2. 싱가포르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가. 싱가포르의 코로나19와 입국관리 동향

- 초기부터 입국 통제와 함께 시설 격리 실시
 - 싱가포르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의 비중이 높고 이웃 국가 화교들의 방문이 잦은 특성으로 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
 - 자국 국민과 장기 거주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시설격리 의무화
-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집단 감염 발생
 - 싱가포르는 초기부터 입국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확진자가 급증
 - 그러나 이 확진자 급증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집단발생
 - 싱가포르에는 약 140 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이 중 약 20만 명이 위생과 공중보건의 취약한 집단 기숙사에서 생활
- 신속한 대처와 격리,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으로 9월부터 안정세 유지
 -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위기 국면

-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로 위기를 넘기고 9월부터는 신규 확진자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한 자리로 감소

[그림 3-4] 싱가포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https://covid19.who.int/>)

나. 다양한 형태의 트래블 버블을 시행

- 시행배경: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경제구조
 - 싱가포르는 좁은 면적의 도시국가인 특성상 1차 산업의 비중이 1% 미만이며 제조업은 20%정도를 차지
 - 반면에 전체 GDP에서 금융, 기업서비스, 물류,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특히 홍콩과 함께 금융, 물류에서 동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2019년 기준)²⁵⁾
 -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2019년 기준)
 - 외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인 싱가포르 경제구조 특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해외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 시작함
- 싱가포르는 여러 형태의 트래블 버블 시행 中
 - 싱가포르는 자국과의 교류가 잦거나 안정적인 코로나19가 유지되는 국가들을 상대로 트래블 버블 시행

25) 싱가포르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https://www.singstat.gov.sg/>)

- 싱가포르의 트래블 버블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임: 1) Air Travel Pass, 2) Reciprocal Green Lane 3) Air Travel Bubble
- Air Travel Pass: 관광목적의 여행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여행이 가능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싱가포르로의 단방향(One-way)만 가능: 해당 국가는 호주, 브루나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 Reciprocal Green Lane: 관광 목적을 제외한 상호(Two-way) 공무여행(Official Travel)과 상용여행(Business Travel) 가능: 해당 국가는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 Air Travel Bubble: 모든 종류의 상호 여행 가능, 홍콩-싱가포르 실시 예정

〈표 3-2〉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유형 (2020.11.11. 기준)

유형	특징	적용 국가 (시행일)	비고
Air Travel P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공무, 상용 모든 종류 여행 가능 -해당국가 --> 싱가포르만 가능 -ATP 신청비용 및 신청 Quota 없음 -싱가포르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의무화. 검사비용 300SG달러 본인부담 -48시간 이내 결과 통보 전까지 본인 선택 시설에서 격리 유지 -음성결과 통보 후 여행 가능하나 동선 관찰 App 설치 의무 -양성 확진으로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치료 시 제반 비용은 여행자 본인 부담 -12살 미만은 ATP 신청 불가능 -비자는 요구 국가에 따라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09.30)²⁶⁾, -브루나이(08.21) -중국(11.06), -뉴질랜드(08.21) -베트남(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협의 아닌 일방적 개방 -유럽의 국경개방과 방식은 같지만 사전 신청을 통한 승인과 PCR 검사 및 모바일 App 등으로 안전 장치 마련 차이점
Reciprocal Green Lane (Fast La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 상용 여행만 가능 -해당국가 <--> 싱가포르 상호 적용 -해당 국가 정부 또는 회사의 사전 신청 -신청비는 없으나 신청 Quota 있음 -72시간 이내 지정 병원에서의 사전 PCR 검사 음성결과 제출, 건강 확인서 -사전에 출장 일정 및 이동경로 제출 -싱가포르 입국 시 PCR 재검사 (비용 본인 부담) -검사결과 전까지 Air Travel Pass처럼 시설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06.08) -말레이시아(07.14) -브루나이(09.01) -한국(09.04) -일본(09.11) -인도네시아(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협의를 통한 양방향 Arrangement -출국 전, 입국 후 두 번의 PCR 검사 -Air Travel Pass 허용 국가보다 코로나19 위험도가 높게 판단하여 신청 Quota 부과

26) 호주 빅토리아 주는 10.29 추가 개방

유형	특징	적용 국가 (시행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 판정 통보 후 업무 처리 가능하나 사전 제출한 일정에 따라 행동 -양성 확진으로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치료 시 제반 비용은 여행자 본인 부담 -비자는 요구 국가에 따라서 신청 -싱가포르 일정 마치고 귀국 시에는 해당 국가의 방역 지침에 따름(한국의 경우 14일 격리 원칙) 		
Air Travel Bub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없는 모든 종류의 여행 가능 -출국 전 72시간 이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후 음성결과 사전 제출 후 시설 또는 자가격리 면제 (왕복 여행 시 출발국가에서 검사해야하므로 최소한 2 번 검사 필요) -홍콩 공항 도착 시 PCR 재검사 의무, 싱가포르 공항 도착 시 검사 의무는 없음 -지정 항공기 운항 하루 한 차례, 승객 200명 이내로 제한 (케세이퍼시픽항공, 싱가포르 항공) -출국 전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한 사람만 가능(국적상 관 없음) -모바일 추적 APP 설치 -양국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트래블 버블 2주간 중단 -이후 5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재개 	-싱가포르-홍콩 상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시행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 -모니터링 후 문제 없으면 12월 7일부터 하루 두 편으로 증편 -단체 관광이 아닌 FIT 형태 (200 명/ day) 이며 여행 목적이나 일정 제한 없음 -여행 희망자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정 항공 티켓도 본인이 구매

출처: 싱가포르 이민 & 출입국 관리청 (<https://safetravel.ica.gov.sg/>),

홍콩정부 트래블 버블 사이트(<https://www.tourism.gov.hk/travel-bubble/en/singapore.html>)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3. 대만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가. 대만의 코로나19와 입국관리

■ 과거 SARS 교훈으로 강력한 입국 통제 실시²⁷⁾

- 대만은 과거 SARS 발생 시 346명 감염, 37명이 사망한 경험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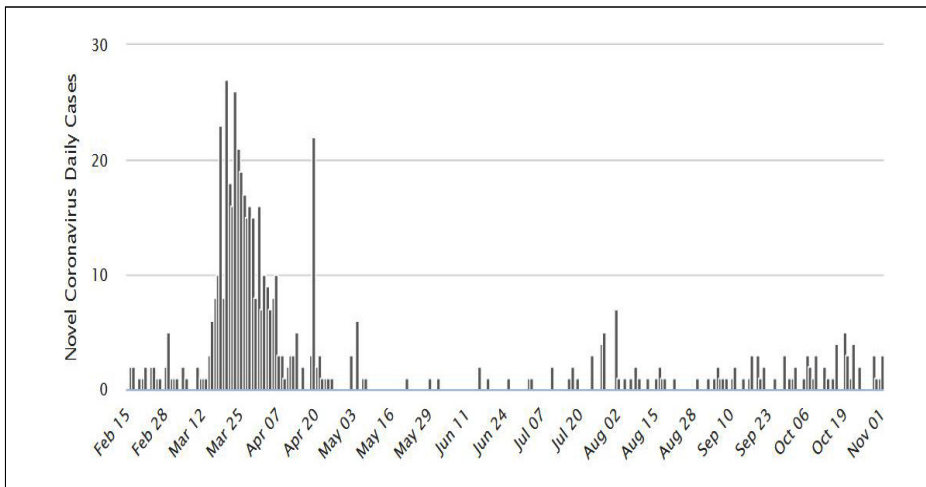
27) 한국관광공사 타이페이지사 자문

-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대만 정부는 과거 SARS 경험을 교훈으로 신속한 입국 통제 실시
- 2020.01.21. 대만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미 대만에 들어와 있던 중국 단체를 돌려보내고 이미 예정되어있던 중국여행 허가도 취소
- 중국 단체의 대만 방문 뿐 아니라 대만단체의 중국 방문도 금지시킴
- 관광 및 일반적 사회 방문 목적(친구 방문, 결혼식 참석, 문화활동 참석 등)의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6.24.)

■ 장기간 대만 지역사회 감염자 제로 유지

- 대만은 초기부터 강력한 입국 통제, 접촉자 추적 관리,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규칙 준수 등으로 04.12 확진자 발생을 마지막으로 200일간 대만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 미발생²⁸⁾
- 대만은 총 확진자 555명, 사망자 7명만 기록하고 있음(2020.10.31. 기준)²⁹⁾
- 10월에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귀국하는 여행자들이 해외 유입이 발생하였지만 일일 2-3명 유지.

[그림 3-5] 대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월드미터(<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taiwan/>)

28) Bloomberg News, 2020.10.29. "Record 200 Days With No Local Case Makes Taiwan World's Envy"

29) 대만 질병관리본부(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CECC) 보도자료(press release), 2020.10.31

- 해외국가 위험도 평가에 따른 입국 재개 차별화³⁰⁾
 - 대만 정부는 코로나 기간의 국제여행을 1)외교버블(공무여행: 外交泡泡)2) 비즈니스버블(상용여행: 商務泡泡) 3) 트래블 버블(관광여행: 旅遊泡泡) 로 분류하며 현재는 외교버블과 비즈니스버블을 제한적으로 실시
 - 다만 대만의 외교버블/비즈니스버블은 양방향적인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닌 대만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해외국가들의 위험등급과 여행목적을 심사하여 결정
 - 외교버블은 주관부처가 방문목적과 방역계획서를 제출하면 대만질병관리센터 (Central Epidemic Command Center:CECC)에서 평가하고 특별 사례로 인정될 경우만 외국 사절의 입국 후 자가 격리를 제한적으로 면제함
 - 대만질병센터는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만의 국가들을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Color code로 나눔 (진녹색-가장 저 위험/연녹색/노랑/주황/빨강- 가장 고위험)
 - 비즈니스버블은 대만질병관리센터에서 저 위험, 저중위험으로 평가한 국가들만 가능하며 등급에 따라 자가격리기간을 달리함
 - 대만은 비즈니스 버블의 경우도 완전한 격리면제는 아니며 PCR검사 후 음성이라도 저 위험 국가는 자가격리 5일, 저중위험국가는 자가격리 7일을 거쳐야 할 정도로 매우 신중한 입국관리를 하고 있음

「대만의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 자가격리 완화 적용조건」

- 적용대상: 입국 14일 이내 타 국가 방문 이력이 없는 체류기간 3개월 미만 외국인
- 입국목적: 상품검사, A/S, 기술지원훈련, 계약진행 등 단기 비즈니스 활동
- 추진방식: 사전신청 허가제
- 입국시 지참 필요서류
 - ① 대만 내 방문업체의 초청 관련 증명문서 ② 대만 내 일정표 및 방역계획서
 - ③ 대만 입국 3일 이내 검사한 PCR(핵산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
- 등급 적용현황(대만 CDC 기준, 10.31)
 - 저위험국(A급): 뉴질랜드, 마카오, 팔라우, 피지, 브루나이, 태국, 몽골, 부탄, 라오스, 스리랑카, 나우루, 동티모르, 모리셔스, 베트남, 마셜제도 / 자가격리 5일후 핵산검사(자비)
 - 중저위험국(B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 자가격리 7일후 핵산검사(자비)

출처: 대만질병관리센터

30) 한국관광공사 타이페이지사 자문

나. 국제관광 재개와 트래블 버블 계획 지연

- 3단계에 걸쳐 관광산업의 단계적 회복 추진
 - 대만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만의 관광정책을 우선 긴급지원에 치중하고 이후 대만 국내의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1) 방역여행 2) 안심여행 3) 국제여행 3단계로 관광산업 회복 추진
 - 방역여행은 우선적으로 관광산업 종사자의 방역수칙 준수와 교육에 치중하고, 이후 안심여행 단계에서는 국내 관광 진흥에 중점을 둠
 - 마지막 단계인 국제여행은 국경 통제를 완화시키고 트래블 버블을 통한 국제관광의 재개를 추진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제관광 재개 연기
 -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2020.10.01.부터 국경통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관광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해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제관광 재개가 지연
 - 대만 정부는 일반 관광객의 국제교류인 트래블 버블 관련 한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국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한 관계로 트래블 버블 도입 시기상조로 판단함
 - 대만 질병관리본부(CDEC)에서는 백신이 출시되는 2021년 4분기까지는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CDEC 의 예상에 따라 대만 관광국에서도 관광 목적의 트래블 버블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만 관광국은 현재 CDEC 가 저위험 또는 중저위험 국가로 분류한 국가들 중 홍콩, 마카오,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트래블 버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CDCE 의 사전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대만 언론들은 보고 있음³¹⁾
 - 대만 관광국은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대만 국내관광 진흥에 집중하고 국제관광이 어려운 관광업계에는 가상출국 상품 등의 대체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짐³²⁾

31)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 2020.11.03, “2021第四季國際旅遊見曙光? 觀光局擬對港澳日韓等5國優先佈局”

-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대만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면 대만은 백신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국제관광 재개에는 매우 보수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4. 태국의 코로나19와 국제관광 재개동향

가. 태국의 코로나19와 입국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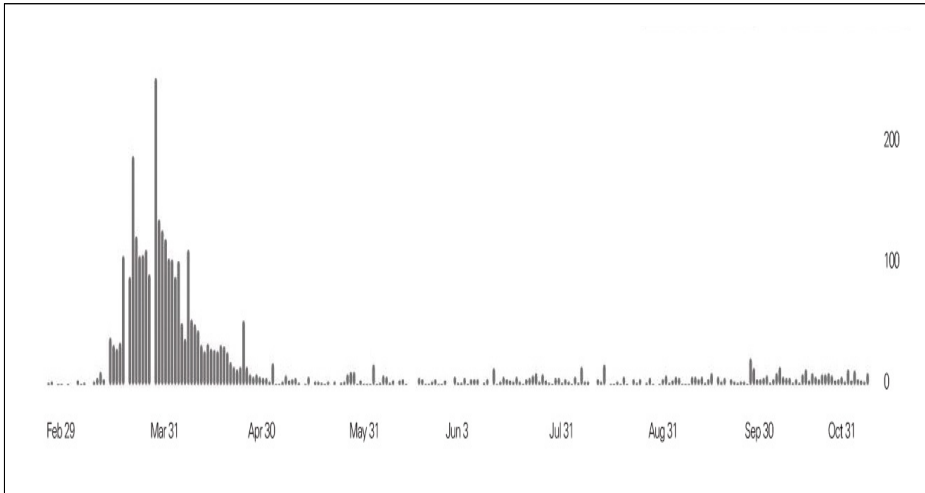
- 중국 이외 국가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태국
 - 중국은 태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1위 시장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연간 1,000 만 명에 달함(신용석, 2020)
 - 태국 내 첫 확진자도 자국민이 아닌 중국인 여행객이었으며 이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최초 사례였음(2020.01.13.)
 - 이후 2, 3번째 환자도 중국인이었으며 초기 태국인 확진자들도 중국 방문 이력을 가진 환자들로 이후 2월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
 - 이에 태국 정부는 태국 내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에서 ‘위험’ 단계로 상향 조정(2020.02.24.)하고 태국인들의 코로나19발생 국가로의 여행 자제 및 귀국 후 자가격리 권고
- 3월말부터 코로나19대비 국가비상사태 실시 이후 계속 연장 중³²⁾
 - 2020.03부터 누적 확진자 100명 돌파,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태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2020.03.26.)
 -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외국인 태국 입국 금지, 태국 주간 이동 자제, 감염 위험 지역 진입 금지, 질병감염위험 시설 폐쇄, 집회 금지, 고위험군(고령자, 영유아, 기저질환자) 외출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짐
 - 태국 정부의 강력한 이동 통제 및 관리로 태국의 코로나19는 4월부터는 안정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후 신규 확진자는 한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음

32) 대만 정부의 코로나19 정책기조는 ‘변경의 위험은 엄격히 관리하고, 국내는 규제를 완화한다(邊境風險嚴管, 國內鬆綁)’ 이고 이에 따라 관광정책도 당분간 국제관광은 엄격히, 국내관광은 안심관광, 가상관광 등의 여러 대체 상품을 출시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한국관광공사 타이페이 지사)

33) KOTRA 방콕무역관, 주 태국 한국대사관, 태국관광청 자료 등을 주로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 그러나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비상사태 단계는 3월 말에 선포된 후 여전히 매달 연장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다시 7번째 연장되었음³⁴⁾

[그림 3-6] 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



출처: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상황판(<https://covid19.who.int/>)

나. 태국의 국제관광 재개 추이

- 2020.07부터 의료관광객을 포함한 특정그룹만 입국 허가
 - 태국은 6월경부터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공무 출장자, 의료 목적 방문객, 유학생 등과 함께 중국, 일본, 한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도 입국 가능 대상으로 할 것을 고려하였음
 -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태국 질병관리센터인 CCSA(Centre for Covid-19 Situation Administration), 보건부 등의 우려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트래블 버블은 보류되고 특정 그룹을 상대로만 7월 1일부터 입국이 허가됨
 - 입국허가 그룹은 ①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②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③ 태국 영주권자, ④ 워크퍼밋(노동허가서) 소지자, ⑤ 여행기 승무원, ⑥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유학생, 학부모, ⑦

34) 일부에서는 태국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서 7월부터 제한적인 외국인의 입국이 시작되었는데도 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태국에 대한 반정부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음

코로나19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관광객, ⑧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대표단 및 배우자, 부모, 자녀 등임

- 입국허가 대상자는 출국 전에 ①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② 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 ③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④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⑤ 10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를 갖춰야 함
- 태국 입국 후에는 ① 코로나19 재검사 ② 관찰 APP 설치, ③ 14일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함
- 2020.10 부터는 장기 체류관광객 대상의 특별관광비자 프로그램 시범 운영
 - 태국 정부는 침체에 빠진 태국관광산업을 위해 장기 체류(Long stay) 관광 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관광비자(Special Tourist Visa: STV)를 발급함
 - STV 는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70일간 태국에 체류가 가능함
 - STV 비자 발급 희망자는 입국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증과 함께 입국 시 재검사를 받고 14일간 시설 격리를 받아야 함.
 - 태국은 STV 프로그램을 우선 중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중국 상하이(10.20, 39명), 광저우(10.26, 147명) 등에서 중국 관광객이 태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통과하고 시설 격리를 시작함.
 - 태국 정부는 STV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관찰 후 11월에는 유럽으로 확대하고 시설 격리기간도 7일~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임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코로나19 발생 후 입국통제 완화의 지역적 차이

- 코로나19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입국통제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가 장기화되자 국가별로 입국통제를 완화하면서 해외방문객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발생
- 그러나 이러한 입국통제를 완화하는 정도와 그 방법은 지역별/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는 해당 지역(국가)의 코로나19 확산동향이나 국가의 경제, 산업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과거 사스(SARS) 감염 확산 등의 해당 국가의 경험 차이에서도 기인
- 해당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방문객의 입국관리 완화 과정에서 해외 관광객을 포함시키고 관리하는 정도도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유럽의 국경개방과 코로나19 재확산

-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이뤄진 지역구조로 인해 EU 회원국 간에는 국경통제가 거의 없으며 잦은 이동으로 인해 완전히 국경을 폐쇄하기가 어려운 구조
-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6월에는 EU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만 국경을 통제하고 회원국 사이에는 제한적인 통행을 유지
-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EU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3개 국가에 대하여 회원국들에게 국경개방을 권고하였고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를 따름

- EU 회원국들의 국경개방은 트래블 버블에 의한 국가 간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경을 개방한 것이었으며 개방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해외 방문객의 경우에는 간단한 서약서 이외에는 코로나19 사전 검사도 요구하지 않음
- 이러한 개방의 효과가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여행을 증가시키는 효과
- 그러나 국내여행 증가로 인한 감염전파의 결과 휴가철이 끝난 9월부터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커져 다시 봉쇄(Lockdown)에 들어가게 됨
- 유럽의 대표적 관광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도 7월부터 국경을 개방하였지만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크게 없고 바캉스 철을 맞아 국내 여행객 증가
- 프랑스도 9월부터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야간 통행금지와 봉쇄조치에 들어감

3. 호주-뉴질랜드 트래블버블 제한적 시행

- 다수의 섬 국가들로 이루어진 오세아니아 지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륙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차단하고 외국인 입국을 막음
-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작은 섬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역능력과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는 강한 입국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
- 호주와 뉴질랜드도 입국관리 통제를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시작하였으며 호주에서 여름철에 일시적인 확진자 증가가 있었지만 이후 안정
-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지만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들은 관광재개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상호 의존도가 높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트래블 버블(trans-Tasman bubble) 논의 후 10월부터 시작하였지만, 이는 뉴질랜드 --> 호주만의 방문이 가능하고 또한 호주 전 지역이 아닌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음

- 또한 호주-뉴질랜드 트래블 버블은 호주 입국시에만 격리가 면제되고 뉴질랜드 귀국 후에는 14일간의 시설격리를 부담해야 해서 단기관광객들의 실제 이용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아시아의 국가별 국제관광 재개 대응 차별화

- 아시아 지역은 코로나19 발생 지역이 중국이고 과거 사스 발생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대체로 입국관리를 강화한 편임
 - 다만 해외감염을 막기 위한 국경통제 시기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
-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국제관광 재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이며 국가별로 대응방향에 차이가 있음
-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트래블 버블을 시행 중임
 - 서비스산업 비중이 큰 싱가포르는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과 공무여행, 비즈니스 여행에 대해 상호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Green Lane(Fast Lane)제도를 운영
 - 호주, 브루나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대상으로 관광 여행까지 포함한 국경 개방(Air Travel Pass)
 - 격리가 없으며 상호 관광여행이 가능한 가장 완전한 형태의 Air Travel Bubble을 홍콩과 실시하기로 합의
- 대만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코로나19가 안정된 국가이지만 국제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 접근
 - 대만은 외국 국가들을 코로나19 상황 위험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1, 2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출장 입국 허용
 - 그러나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도 5~7일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 대만 자체는 이미 수개월간 국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되었지만, 해외 국가들의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국내관광 진흥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

- 태국은 의료관광부터 시작하여 장기체류관광 분야로 국제관광 재개 확대 추진
 - 태국은 2020,7월부터 특정 그룹을 상대로만 제한적 입국을 허가했는데 여기에 의료관광객이 포함되었고 10월부터는 장기체류관광객도 허용하고 있음
 - 태국의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 검사를 통과하여도 2주간의 시설 격리를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간,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고 소득층 관광객의 이용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관광여행 목적의 트래블 버블 시행

- 해외 국가들의 국제관광 재개 동향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완전한 형태의 트래블 버블, 즉 1) 관광 목적의 2) 격리조치 없는 3) 상호 여행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
 - 싱가포르와 홍콩의 Air Travel Bubble 이 시행되면 최초의 사례로 2020. 11.22.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로 연기
 - 현재 관광 목적의 여행 허기는 대부분 단방향(One-way)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 관광 목적의 트래블 버블 시행에는 시설(자가) 격리의 완전한 면제가 변수
 - 트래블 버블의 핵심 요소는 격리 면제인데, 의료계에서는 14일 격리 준수를 권고하고 있어 단기체류 관광객에는 큰 난관임
 - 격리면제를 허용하는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의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비용, 귀국 시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체류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이 크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태국의 경우는 2주간의 시설격리와 관련 비용 등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장기체류관광객과 의료관광객을 상대로 우선 국제관광 재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임
 - 실제로 입국, 귀국 후 모두 격리를 면제해주거나 또는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경우가 아닌 상태의 제한적 트래블 버블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관광목적의 여행까지 포함하여 양방향의 트래블 버블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10.31 기준)
- 완전한 형태의 트래블 버블인 싱가포르-홍콩이 시행 예정이므로 이의 운용 결과를 계속 관찰하는 것이 필요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제4장

우리나라 입국관리 동향과
국제관광 재개 의견조사

제1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입국관리 동향

1.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체계

- 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향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방역 대응 체계 가동
 -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치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함(2020.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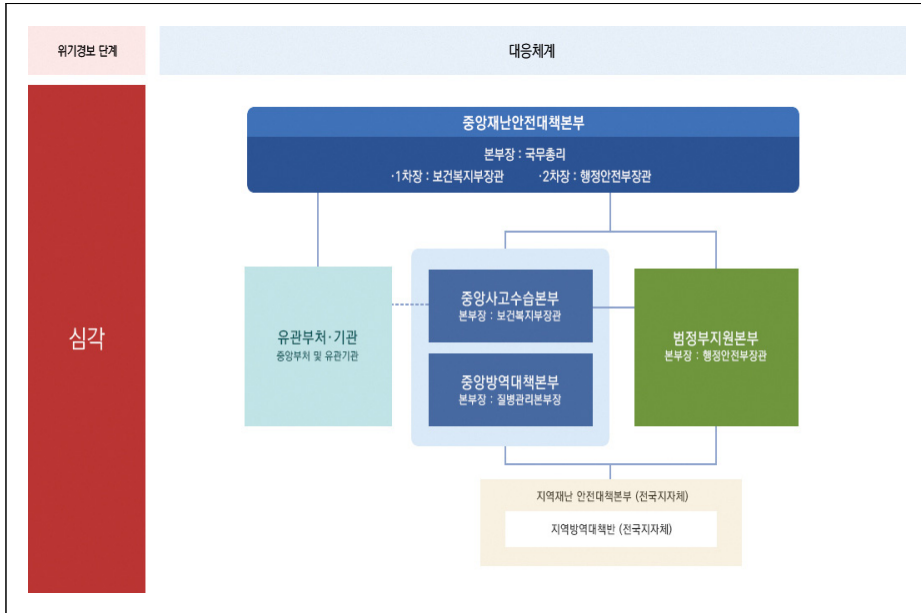
<표 4-1>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

구분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 가동 중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책결정 컨트롤타워이며 방역컨트롤타워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에서 수행

[그림 4-1] 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 범정부 대응체계 조직도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이트 (<http://ncov.mohw.go.kr/>)

2. <심각> 단계에 따른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 절차 실시 확대(2020.03.19.)
 -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한편 해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차단을 위하여 입국자 관리도 강화
 - 주요 확진국가 입국자에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실시
 - 모든 내·외국인은 체온측정, 특별검역신고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 확인, 안전보호 앱 또는 자가진단 앱 설치
-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격리 의무화 (2020.04.01.)
 -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와 2주간 격리 실시

[그림 4-2]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 검역흐름도 (유증상자)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이트 (<http://ncov.mohw.go.kr/>)

1) 유증상자: 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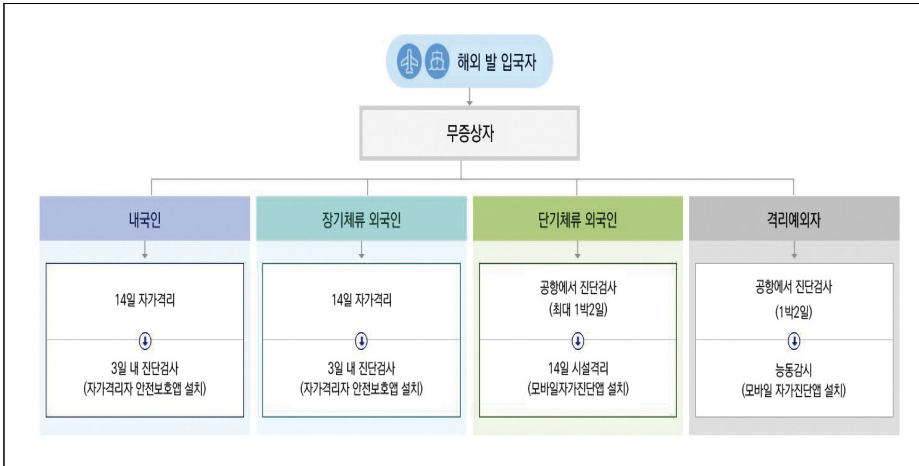
-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2) 무증상자: 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및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 진단앱 설치) 및 공항 진단검사
- 격리예외자(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또는 입국 전 한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발급 받은 자): 공항 진단검사 및 14일 능동감시³⁵⁾

35) 능동감시: 대상자를 격리하지 않는 대신 관할 보건소에서 14일간 하루에 두 번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그림 4-3]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 검역흐름도 (무증상자)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이트 (<http://ncov.mohw.go.kr/>)

-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2020.04.13.)
 -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격리조치에 따른 행정력 소모, 국민 우려,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 관련 조치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로 함
 - 이에 따라 정부는 1) 20.4.5 이전 발행한 단기사증 효력 잠정 정지, 2) 사증 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 90개국 입국 제한, 3) 사증심사 강화 조치를 시행함

3. 격리면제 조치와 신속입국 제도

가. 격리면제³⁶⁾

- 개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긴급 목적의 입국일 경우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³⁷⁾으로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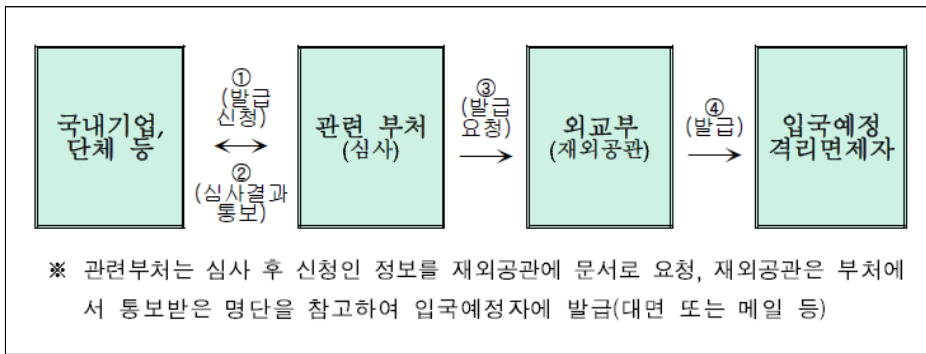
36) 외교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기준(2020.09.12.)

37) 외국인의 경우 다음 사증에만 해당: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단, 대상자는 공항 진단검사 후 음성이어야 하며 자가 진단 앱 설치 후 능동감시

- 발급 요건: ① 중요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② 학술·공익적 목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③ 인도적 목적(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
- 발급 절차: ① 관련부처 심사를 통하여 재외공관에서 발급 (중요 사업상 목적 및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 ②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발급(인도적 목적)

[그림 4-4]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절차(사업상 목적 및 학술·공익적 목적 대상자)



출처: 외교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2020.09.12.)

- 격리면제기간: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의 목적은 최대 14일까지이며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관련 부처 및 분야: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등

나. 신속통로(fast lane or fast track)

- 개요: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 인력의 상호 출장 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입국시에 격리를 면제받는 제도

-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 상호 격리 면제이며 업무 수행 후 귀국 시에는 2주 격리가 원칙 (즉 상대국가 입국시에만 격리가 면제)
- 발급 요건: 공무원여행(Official Travel)과 기업출장(Business Travel)에만 해당
- 발급 절차: (한국 -> 방문국 기준)
 - 1) 방문국의 해당 초청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초청장 신청
 - 2) 초청장, 건강진단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72시간 이내 검사) 등을 첨부하여 방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필요시)
 - 3) 방문국 도착 시 코로나19 재검사, 음성 확인 후 업무 수행
 - 4) 업무 수행 후 귀국 시 자가격리 2주 원칙
- 시행 국가
 - 우리나라는 중국(2020.05.01. 시행), UAE(2020.08.05. 시행), 인도네시아 (2020.08.17. 시행), 싱가포르(2020.09.04 시행) 일본(2020.10.08. 시행) 등 5개국과 신속통로 시행 중
 - 향후 우리 기업인들의 해외출장 수요가 많은 베트남 등과 신속통로 추가 실시 협의 중으로 알려짐
- 신속통로 대상국 선정기준
 - 현재 우리나라와 신속통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공식적인 선정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교역현황,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해당 국가 출장 수요, 상대국가 코로나19 현황, 상대국가의 신속통로 희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

〈표 4-2〉 우리나라 주요 교역 대상국가 현황

순위	국가명	교역규모	수출금액	수입금액	신속통로 시행 中 (2020.10.30. 기준)
1	중국	243,431,269	136,202,533	107,228,736	O
2	미국	135,222,462	73,343,898	61,878,564	
3	일본	76,001,066	28,420,213	47,580,853	O
4	베트남	69,249,306	48,177,749	21,071,557	
5	홍콩	33,692,418	31,912,876	1,779,542	
6	대만	31,383,994	15,666,310	15,717,684	
7	독일	28,622,674	8,685,737	19,936,937	
8	호주	28,498,804	7,890,566	20,608,238	
9	사우디아라비아	25,537,701	3,697,120	21,840,581	
10	러시아 연방	22,340,640	7,774,133	14,566,507	
11	인도	20,661,561	15,096,302	5,565,259	
12	싱가포르	19,428,510	12,768,034	6,660,476	O
13	말레이시아	18,123,439	8,843,499	9,279,940	
14	멕시코	17,086,882	10,927,016	6,159,866	
15	인도네시아	16,469,824	7,650,051	8,819,773	O
16	카타르	13,393,843	357,290	13,036,553	
17	태국	13,121,697	7,804,095	5,317,602	
18	UAE	12,460,919	3,469,772	8,991,147	O
19	필리핀	12,023,348	8,365,340	3,658,008	
20	쿠웨이트	11,727,120	956,032	10,771,088	

출처: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자료 정리

제2절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1.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가. 조사 개요

■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 입국관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업계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함
- 관련업계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 정도와 현재 입국관리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관광목적의 트래블 버블 방향 수립에 참고

■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은 코로나19 입국관리로부터 가장 타격이 큰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의견 청취
- 의료관광 관계자, 한국관광공사 등의 의견도 조사하여 다양한 시각 수렴
- 조사 방법은 대면회의(3차),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실시

나. 조사 주요 결과

1)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현황

■ 항공업

- 항공업은 작년(2019년)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일본 노선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타격 심화, 전년 대비 항공수요 7~80% 감소 추정, 화물수요가 아닌 순수 여객 수요는 90% 감소 추정

- 초기에는 중국 중심 운항 축소에서 현재는 모든 운항 노선 축소나 중지
- 해외여행 출국자 대폭 감소로 여행부문 타격이 심각하며 이직, 휴직자 증가

■ 여행업

-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700~800개 여행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추정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
- 항공업은 정부 기간산업 지원 고려대상이 되지만 여행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프리랜서도 많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더욱 열악함
- 정부에서는 국내 여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행업의 매출은 국외 여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의료관광업계(종합병원 국제의료센터 및 중개업체)

- 전년 대비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는 급감하였으며 한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입국이 용이한 터키, 유럽 등으로 방문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서의 시설격리를 하는 ‘외국인환자 확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병원의 관리 부담이 너무 커서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용하지 않음³⁸⁾
-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 중 극소수가 2주간 시설격리를 감수하고 입국하나 일반 외국인들과 같은 시설에 격리조치되고 동반자와 분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설격리에 대한 외국인 환자들의 불안감이 큼
- 재외공관에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 거주국가로부터 한국으로의 출국 자체가 힘든 상황임

38) ‘외국인 환자 확인증’은 암 수술, 항암치료, 심뇌혈관 등 중증환자(단순 미용, 성형, 검진 및 경증 환자 제외)의 경우 병원에서 1인 병실에 환자를 별도로 격리하고 관리를 책임질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외국인 입국자 대상의 격리시설이 아닌 해당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병원에 발급해주는 확인증을 말함(2020.07.20.부터 실시), 단 해당 환자가 출발 72시간 이내(방역강화 대상국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 음성판정을 받고, 한국 도착 시 재검사에서 음성결과가 확인된 경우만 병원에서 격리를 할 수 있게 허가.

2) 트래블 버블 관련 의견

■ 항공업

- 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도 동의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점진적 회복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해외국가들 중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제한 완화와 격리 완화가 필요
- 당장 순수 관광목적의 트래블 버블이 어려우면 상용수요(Business Travel)에 대한 비즈니스 패스트 트랙(신속통로 제도) 국가라도 확대시켜 나가면 항공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여행업

- 트래블 버블을 위해서는 현재 14일간 의무화되고 있는 격리에 대한 완화가 필요
- 격리에 대한 완화 없이는 비용, 시간 부담으로 트래블 버블의 의미가 없을 것임
- 방역우수국가에게는 격리를 면제해주거나, 격리기간을 단축시켜줄 필요가 있음
-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하면 국내여행과 마찬가지로 국제여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의료관광업

- 의료관광의 관점을 단순히 관광산업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료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으며 재진환자라도 입국절차를 완화시켜 환자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함
- 태국, 말레이시아 등 경쟁 국가들은 의료관광 부문에 대해서는 입국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10여년 넘게 쌓은 의료관광 노력을 다른 국가에게 모두 빼앗길 수도 있음
-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격리기간 완화가 어려우면 일차적으로 외국인 환자들 전용 격리시설을 마련하여 환자들의 입국 시 불안감을 줄여줄 필요

2. 전문가 의견 조사

가. 조사 개요

■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트래블 버블 시행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학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행
- 트래블 버블 허용 조건 및 시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의 의견 정취

■ 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은 감염학, 예방의학 전공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 방법은 대면 심층 인터뷰, 서면 자문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나. 조사 주요 결과

1) 코로나19 특성과 국제관광 재개

■ 코로나19 특성

-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기초감염재생산수(basic reproduction number, R_0)³⁹⁾가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감염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외 이동을 억제하고 있음
-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전파력이 높아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가 감염을 억제시키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 계절성 독감과 유사한 전염성 감염병이나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조치를 강하게 실시
- 백신 개발은 내년(2021년)으로 예상되지만 일반인들이 모두 접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39) 전염성 감염병에서 한 사람의 감염자가 평균 몇 명에게 옮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함. 코로나 19의 경우에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4~3.9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코로나19 종식과 국제관광 재개 관련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감염병의 경우 공식적인 종식기준은 없지만, 백신이 개발 완료되어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을 마치고 항체를 보유해야 이론적으로 종식이 된 것으로 평가
- 또는 과거 메르스 때처럼 추가 감염자가 오랜 기간 출현하지 않아, 감염 확산이 잦아진 경우도 종식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현재로서 코로나19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감염 정도도 수그러들지 않아 매일 추가 감염(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광 재개는 어려움
-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극히 작은 확률이더라도 인명에 관련된 문제이며 전염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이 불가피한 사안임

2) 트래블 버블 정책 시행 고려 사항

■ 방역정책 기조 변화가 먼저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정책은 외국처럼 공식적인 봉쇄(Lockdown)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처럼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이동 제한을 시행
- 역외 국가들에게 국경을 개방한 EU의 경우 산업적 고려로 선택을 한 것이며 반면에 방역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한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은 EU와 다름.
- 우리나라의 방역정책은 현재로서는 공중안전(관광)산업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트래블 버블과 같은 정책이 실현되려면 방역 정책의 기조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임

■ 사회적 합의와 국민정서도 고려

-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경우 해외로부터의 잠재적인 유입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큼
- 또한 현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해외 관광객 입국을 허가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정서 문제 등도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이 먼저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는 매일 두 자리~세 자리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트래블 버블 시행 시 추가적인 행정과 방역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먼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 필요
 - 지역 내 신규 감염자수가 한 자리 수로 1주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한국이 방문하기에 안전한 국가” 라는 인식이 생겨야 함

3) 트래블 버블 대상 선정 시 검토사항

-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 선정
 - 최소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숫자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 치료 및 방역역량을 가지고 있고 PCR 검사의 신뢰성, 관련 통계 정기적 공표
 - 해당 국가의 중환자 관리체계 검토
 - 입국 허용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 등도 고려
 - 중국처럼 국토가 넓은 지역은 지역별 상황 고려가 필요
- 트래블 버블 적용 그룹 선정
 - 코로나19 高 위험층(호흡기 관련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제외
 - 돌발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일정 쿼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일일, 주간)
 - 동선파악이 어려운 개별관광객 보다는 동선 관리와 Daily Check 가 가능한 단체관광객 우선
 - 단체관광객도 이동이 적어야 함(공무출장이나 비즈니스출장의 경우 동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
 - 통제 가능한 인원으로 계획된 방역 관광지를 훈련된 가이드와 함께 진행하는 형태

- 의료관광객에 대한 트래블 버블 적용
 - 의료관광객의 경우 이동이 적고 병원에 있어 관리가 용이하여 트래블 버블로 적합한 대상인 것은 사실이며 의료기관에서 관광객에게 방역 수칙 및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게 하면 격리와 진료를 병행할 수는 있음
 - 그러나, 현재처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병원 전체를 무조건 2주간 Shutdown 시키는 정책이 유지되는 한 병원에서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여건임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을 여러 발생상황에 맞춰 다양화하는 사전 조치가 있어야 의료관광 트래블 버블이 가능할 것임
-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기간 완화 문제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평균 5~7일 이지만 7일을 넘어서 격리기간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14일 격리 기간을 완화하고 여행을 할 경우 감염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설격리 비용(행정 비용, 경제비용 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완화를 통해 그 영향을 관찰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임
 - 격리기간 완화의 문제는 의학적 판단보다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기타 고려 사항
 - 트래블 버블 시행 시 관광객의 입국 후 감염이 확인 될 경우 감염자의 의료비용(격리 및 치료 비용 등) 지불 문제 및 환자 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 합의 필요
 -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출시 前 국제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해외로부터의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다방면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코로나19 입국관리 동향

- 2020.03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입국 절차실시 확대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격리 의무화 조치 유지
- 2020.04 단기사증 효력정지와 사증면제, 무사증 입국 정지조치도 여전히 유지 중
- 해외 입국자 증가 시 행정 비용과 국민우려 등을 감안하여 특별입국 절차와 비자 강화 조치로 외국인 입국 감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 정책 기조를 유지

2. 공무와 상용여행의 제한적 트래블 버블

- 우리나라는 현재 입국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공무여행과 상용여행의 제한적 트래블 버블 시행 중
- 중국,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5개국과 신속통로(Fast lan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과의 협의 중
 - 신속통로 대상국가의 선정기준은 알려진 바 없지만 우리 기업인들의 출장 수요가 많고 교역 상위국가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신속통로 제도도 해당 국가의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국으로 귀국 후에 자가 격리 14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3. 관련 업계에서는 트래블 버블 시행 요청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업, 여행업 등 관련 업계에서의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음
- 이에 업계에서는 입국관리를 완화하는 해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여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
-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업과 여행업에서 이러한 요구가 강하며 의료관광 업계에서도 의료관광 환자에 대한 입국통제 완화를 요청
- 업계 요청의 핵심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 국내 여행처럼 국제여행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

4. 전문가들은 트래블 버블에 대해 신중한 입장

- 감염학,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트래블 버블의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
- 코로나19가 안정된 국가를 상대로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더라도 격리를 면제할 경우 해외감염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려의 이유
 - 의학적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코로나19 백신 출시 전에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정책 기조는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하고 해외로부터의 입국자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유지하면서 트래블 버블 시행은 어려움
 -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제5장

우리나라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대비방향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 연구결과 종합

- 각 장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대응방향 설정에 참고

〈표 5-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구분	연구결과		시사점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의 개념 및 동향	면역 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코로나19 항체 보유 여부 증명문 건 •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체보유가 코로나19에 면역 보장여부 불확실 - 사회적 차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적, 사회적 이슈로 코로나19 면역여권 실용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음 - 다만 코로나19 백신 출시 후에는 접종증명서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음 - 백신 출시 전까지는 PCR 검사로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형식 이용
	트래블 버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코로나19 저위험 국가 간 상호 입국통제를 완화하여 국제 여행 가능 •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가 선정 기준, 적용그룹, 완화 정도에 대한 국제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 버블은 관광에 대한 허가가 아닌 여행에 대한 허가라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존재 • 정책적 판단에 의해 그 범위와 실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다각도에서 사전 검토
해외 국제관광 재개 동향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로 구성된 정치경제구조로 국경통제 유지 어려움 • 2020.07 프랑스 등 EU 역외국가 13개국에 국경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발열체크, 모바일 추적 App 등의 사전 스크린 장치 부재 • 휴가철 이후 9월부터 코로나19 유럽 재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독일 2차 대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국경개방은 트래블 버블이 아닌 일방적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협의가 아니며 다수의 국가에 개방 • 격리면제 뿐 아니라 코로나19 검사 음성여부 확인서 제출 요구도 없어 해외 감염 유입 위험이 큰 방식 • 국경개방은 해외관광객 유치보다는 코로나19 위험기간 통과라는 인식으로 국내 여행 증가 • 휴가철의 국내이동으로 가을철부터 2차감염자 급증이 재봉쇄로 이어짐

구분	연구결과		시사점
해외 국제관광 재개 동향	오세아 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으로부터 떨어진 지리적 특성과 강한 입국 통제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 • 호주-뉴질랜드 간 트래블 버블 논의 후 뉴질랜드-호주 3개 지역에 관광목적 방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및 뉴질랜드 귀국 후 2주간 자가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 역량이 부족한 오세아니아 작은 섬 (small islands)들은 국경폐쇄 계속 유지 • 상호 교류가 잦은 호주-뉴질랜드에서 우선 불완전한 트래블 버블이 시작되었으나 양방향성이 아니며 검사 및 귀국 후 비싼 격리비용으로 관광산업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접 국가와 과거 SARS의 경험으로 강한 입국 통제 및 방역 •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에서 트래블 버블에 대한 시행 및 논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여러 국가와 Green Lane(공무, 상용 여행), 단방향의 Air Travel Pass, 모든 목적의 양방향 Air Travel Bubble 3가지 유형 - 태국: 의료관광 및 장기체류 관광 시행 - 대만: 백신 출시 전까지 관광 목적의 트래블 버블 시행은 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상황과 정책 기조에 따라 트래블 버블이 차별적으로 진행 • 서비스산업과 교역이 중요한 싱가포르가 가장 활발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트래블 버블을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의 격리가 없는 상호 방문 Air Travel Bubble은 홍콩과 시행 예정 • 태국은 시설격리 2주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도 가능한 의료관광과 장기체류 관광부터 시작하였지만, 역시 단방향임 • 대만은 해외국가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외교, 비즈니스 출장만 제한적으로 허용
우리나라 코로나19 입국관리 동향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 조사	코로나 19 입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강화된 입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검사 및 2주 격리, 관찰 APP 설치 • 비자면제 중지 및 강화로 외국인 입국 감소를 통한 해외유입 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현재 코로나19 관련 입국관리는 강화된 정책 기조 유지로 현 상황에서는 트래블 버블 시행 어려움 -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 시행을 위해서는 국제여행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가 먼저 필요
	업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업, 여행업을 중심으로 트래블 버블 시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항공업, 여행업의 특성 상 국내여행 진흥은 큰 도움이 못 됨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 버블의 시행은 해외 유입 위험도를 높일 수 있음 - 백신 전 시행할 경우 소규모 단체, 인접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는 평균 5~7일이지만 격리기간 중에도 감염발생이 있어 의학계에서는 최대한 보수적 입장임 •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및 국민 공감대 필요

제2절 국제관광 재개 대응방향

1. 국제관광 재개 대응방향 원칙: 단계적 시행

- 국제관광 재개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각 단계(Phase)로 구분하여 시행
 - 前 단계의 성공적 완료 후 다음 단계로 진행
 - 각 단계에서 문제 발생 시 즉시 중단
 - 단계별 시행 필요사항 준비 및 검토

2. 단계별 개요 및 필요사항

가. 1단계 (준비기)

1) 개요

- 국제관광 재개 시행을 위한 준비 시기: 관광분야 트래블 버블 시행
 - 관광목적의 여행을 허가하는 트래블 버블 시행을 위한 준비

2) 필요사항

①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 코로나19 백신 출시 전에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경우 충분한 협의 및 검토
 -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법무부, 외교부 등) 협의 필요
 - 트래블 버블 관련 토론회 개최 (관광업계 및 의료 전문가 참석 공개토론회)

※ 참고: 코로나19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간 대응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략 재정립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2020.10.26.)
 - 방역, 의료, 사회 각 부문별 코로나19 대응성과 평가 및 문제점 토의
 - 사회적 거리두기의 편익과 개편방향,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 도입
- 이후 11.7일부터 정부는 지속가능한 코로나대응 전략을 위해 사회적거리 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고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여지 최대 확충**

② 국민의견 조사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

- 트래블 버블 시행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및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코로나19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전염성 감염병으로 백신 출시 전에 해외관광객의 입국을 허가할 경우 국민 우려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실제 트래블 버블 시행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가 필요(트래블버블의 시행 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 필요: 해외 여행객 시설격리 면제 수용 의사 및 국민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자가 격리 의무 가능성 등)
 - 관광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③ 트래블버블 대상 국가 선정 기준 마련

- 트래블 버블 협의 국가 선정 기준 마련
 - 방역기준: 상대 국가 코로나19 확진자 동향, 의료 역량, 정보 공개 투명성 등 (의료 전문가 자문)
 - 관광기준: 비자필요 여부, 우리나라와 해당국가 관광교류 정도 (인바운드 방문객 수)
 - 외교기준: 해당국가의 우리나라국민 입국관리 기준(신속통로 실시여부 등) 및 트래블 버블 관심도

〈표 5-2〉 트래블 버블 시행국가 선정기준(예시)

구분	검토사항	비고
방역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상대국가의 코로나19 동향 (ex: 일일 평균 확진자 수) • 의료역량: 방역 및 치료 역량 • 정보 공개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동향 공개 및 일일 보고 - 일반인 접근 가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 전문가 자문 (감염의학 및 예방의학) - 질병관리청 협의
관광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상대국가와 우리나라 관광교류 정도 - 트래블 버블 시행 시 관광산업 효과도 • 후보 상대국가 비자 필요 여부 - 현재 비자면제 및 무비자 협정 중지 국가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바운드 시장 10위 안의 국가 바람직 - 법무부 비자 중지국가 리스트 확인
외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 상대국가의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통제 정도 (전면적 통제면 불가능) • 신속통로(fast lane) 실시여부 • 상대국가의 관광목적 트래블 버블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 버블 협의 용이 국가

④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 및 시행방법 확정

- 국내 부처 협의 및 상대 국가 협의를 통하여 트래블 버블 합의
 - 트래블 버블 선정 기준을 통해 후보 국가들 선정
 - 이후 후보 국가를 관련부처 들과 협의 후 최종 후보 국가 1개국 선정
 - 대상국가 의향 타진 및 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Agreement 가 아닌 Arrangement로 합의)
- 상대 국가와 트래블 버블 시행 방법 협의
 - 시행시기 및 여행 규모(Quota), 방식(격리기간 일수, 코로나19 검사 횟수 등), 의료비용 처리 여부 등 세부사항 협의
 - 시범실시는 의학계의 의견처럼 여행객 관리가 가능한 소규모 단체관광으로 실시가 바람직
 - 홍콩-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개별관광객 대상으로 할 경우 신속한 실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여행객 동선 관리가 어려우며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city 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범위가 넓음

나. 2단계 (시범기)

1) 개요

- 트래블 버블의 시범적 운용을 통한 시행 시기
 - 준비 단계에서 선택된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적 시행
 - 운용결과 모니터링

2) 필요사항

① 코로나19 안전여행상품 인증

- 코로나19 안전여행 상품(Korea Safe Travel Product) 문체부 인증
 - 트래블 버블 체결국가 단체 관광객 대상의 관광상품 인증
 - 방역계획, 관광코스 및 방문지, 숙소에 대한 문체부 안전 인증 상품에 대해서만 시행 허가 (국내관광코스 전문가들로 사전 검증)
 - 우리 국민의 해외방문 상품에 대해서는 현지 관광공사 지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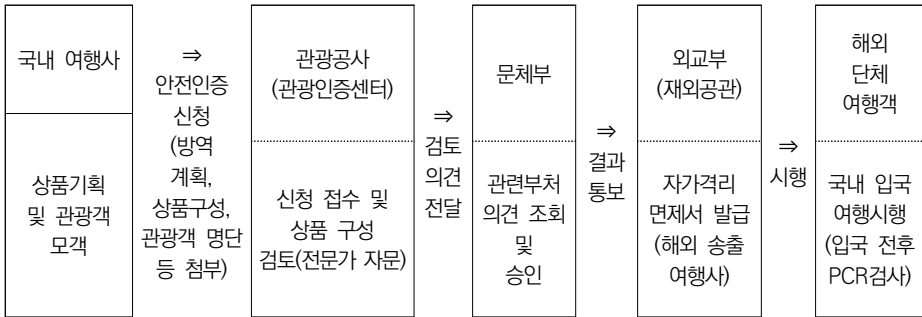
② 안전여행 인증상품에 대한 격리면제

- 문체부-외교부 격리면제 요청
 - 안전여행 인증 상품에 대하여 문체부는 외교부를 통하여 시설격리 면제 추진
 - 관광객에게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및 인천공항 입국 시 코로나19 재검사

③ 안전여행 상품 시범운용 및 모니터링

- 시범운용과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
 - 시범 운용 기간에는 Quota를 정해 실시
 - 국내 입국 72시간 이내 PCR 검사 및 인천공항 입국 후 재검사, 음성 확인 후 관광 실시

[그림 5-1] 트래블버블 안전관광 상품 허가 및 시행 절차



다. 3단계 (확장기)

- 안전여행 상품 성공적 시범 운용 후 관광 규모 확대
 - 시범실시 안전여행 상품 이용자에서 확진자 없을 경우 규모 확대 가능
 - 기존 트래블 버블 시행 국가를 대상으로 Quota 확대 또는 트래블 버블 시행 국가 추가 방식으로 확대 가능 (상황에 따라 선택)
- 코로나19 백신 시기에 따라 확장시기 촉진 가능
 - 2021년에 일반인 접종 가능 시 국제관광 확장 시기 앞당겨질 수 있음

3. 주체별 역할

가. 정부 부처

- 문체부: 트래블 버블 계획 마련(상대국가 관광부처 협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여행객 입출국 방역, 환자 발생 시 관리
- 법무부: 특별관광비자(비자 필요국가 실시 할 경우)
- 외교부: 트래블 버블 협정 체결(상대국가 외교부) 및 격리 면제서 발급

나. 관련 기관

- 한국관광공사: 트래블 버블 관광상품 先 답사 및 인증
- 학계 및 연구원: 트래블 버블 시행 기준 자문(의학계, 관광학계)
- 관광업계: 기획상품 구성 및 여행객 관리프로그램 마련

〈표 5-3〉 코로나19 시기 단계적 국제관광 재개방향

구분	내용
1단계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계 의견수렴 및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업계 및 의학계 등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기초안 마련 • 기초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 • 국민의견 조사와 사회공감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광 재개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 조성 • 트래블 버블 시행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가 선정 기준(방역, 관광, 외교 기준) • 트래블버블 국가 및 세부 내용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국가 확정(관련부처 협의) - 대상 국가 의향 타진 및 세부사항 합의(Arrangement)
2단계 (시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안전여행 상품 문체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블 버블 체결국가 단체 관광객 대상의 관광상품 인증 - 방역계획, 관광코스 및 방문지, 숙소에 대한 사전 검증(한국관광공사 및 관련 전문가 자문) - 해외상품은 현지 관광공사 지사 확인 ※ 소규모 단체 관광으로 실시 • 문체부-외교부 격리면제 시행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여행 인증 상품에 대하여 문체부는 외교부를 통하여 시설격리 면제 추진 - 관광객에게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및 인천공항 입국 시 코로나19 재검사 • 시범운용과 모니터링을 통한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운용 기간에는 Quota를 정해 실시 - 국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3단계 (확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여행 상품 성공적 운용 후 관광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상품 이용객에서 확진자 없을 경우 규모 확대 가능 • 코로나19 백신 시기에 따라 확장시기 촉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에 일반인 접촉 가능 시 국제관광 재개의 확장 시기 앞당겨질 수 있음

결론 및 제언

- 코로나19 감염확산 지속과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관광 시장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타격이 큰 상황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 시대에 맞춰 지속가능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임
-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국제관광 재개를 위하여 최근 면역여권 도입과 트래블 버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배경에서 면역여권과 트래블 버블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국제관광 재개동향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재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음
- 연구 결과 코로나19 면역여권은 백신 출시 이전에는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트래블 버블의 경우 이론적으로 국가 간 협의를 통하여 격리가 면제 되는 상호(Two-way)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경우 EU 회원국 간 경제적 연결성과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이 높아 2020.7월부터 역외국가 13개국에게 국경을 개방하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해외 유입에 대한 방어 장치가 전혀 없어 해외유입 감염 위험이 높음
- 오세아니아의 경우 호주-뉴질랜드 간 일방적인 트래블 버블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행 외 비용이 높아 관광산업에 대한 효과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아시아의 경우는 국가별로 추진 상황이 다른데 싱가포르가 가장 활발하게 트래블 버블을 추진 중이며 태국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관광객을 우선 방문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03월부터 특별입국 조치로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관광목적의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로서는 아님

- 항공업, 여행업 등의 해외매출이 큰 관광업계에서는 트래블 버블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학계에서는 백신 출시 전에 국제관광의 재개에 대해서는 해외감염이 발생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업계와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반된 상황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관광목적의 트래블 버블의 시행을 사전에 각계 의견 수렴과 토론회,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트래블 버블의 의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보다는 향후 국제관광 재개에 대하여 사전 준비훈련에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임
- 트래블 버블의 시행은 준비기-시범기-확장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각 시기별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대처
- 준비기에서는 트래블 버블 대상국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국가를 정하고 해당 국가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확정
- 시범기에서는 해당상품에 대한 인증을 통해 문체부에서 승인을 하고 외교부의 협조를 거쳐 격리면제를 추진하되 코로나19 유전자 검사 등 안전 장치 마련
- 이후 시범 운용이 안전하게 3개월 이상 유지될 경우 트래블 버블의 확장이 가능할 것임
- 결론적으로 국제관광 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의 도입 시 핵심은 격리기간의 면제(또는 완화)인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방역정책(해외입국 관리정책)의 기초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의 면밀한 협의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매우 중요할 것임

참고문헌

- 신용석(2020), 「방한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정책포럼 자료집, 2020년 10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20년 8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 한국여행협회(2020), 2020년 8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 UNWTO(2013), 「Visa Facilitation: Stimulat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Tourism」.
- UNWTO(2020)-a, 「COVID-19 related travel restrictions: A global review for tourism」, 1~7th Edition.
- UNWTO(2020)-b, 「Yearbook of Tourism Statistics Data 2014-2018」, 2020 Edition.
- WTTC(2019), 「Visa Facilitation - Enabling Travel & Job Creation Through Secure & Seamless Cross-border Travel」.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 경향비즈(2019.06.23.), 「[단독]정부, 아고다·부킹닷컴 등 ‘OTA 태스크포스’ 출범 시킨다」.
- 뉴스원(2018.05.30.), 「온라인 여행사·가격비교 채널의 독주... 숙박업체는 올상」.
- The Guardian, (2020.05.04.) UK: health passports 'possible in months'
- UNWTO Press Release, (2020.05.07.), “INTERNATIONAL TOURIST NUMBERS COULD FALL 60-80% IN 2020, UNWTO REPORT.”

〈홈페이지〉

-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
- 국제항공운송협회 www.iata.org
- 대만질병관리센터 <https://covid-19.nchc.org.tw/>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http://ncov.mohw.go.kr>
-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https://covid19.who.int>
- 세계관광기구 코로나19
<https://www.unwto.org/international-tourism-and-covid-19>
- 세계은행 코로나19
<http://datatopics.worldbank.org/universal-health-coverage/coronavirus>
- 싱가포르 통계청 <https://www.singstat.gov.sg>
- 싱가포르 Safe Travel <https://safetravel.ica.gov.sg/>
- 월드미터 <https://www.worldometers.info>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dev/main.mofa>
- 커먼스프로젝트재단 <https://thecommonspj.org/commonpass>
- 홍콩 관광청 트래블버블
<https://www.tourism.gov.hk/travel-bubble/en/singapore.html>

기타 자료는 본문 내 출처 표기로 대신함

ABSTRACT

COVID-19 and the Measure for the Resumption of International Travel for Leisure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wo-folded. First one is to explore the issue of Immunity Passport and Travel Bubble in the context of COVID-19 and the international travel for leisure purpose. The second one is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of major countries regarding border control and international travel.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ceptance of Immunity Passport will not be easy because of medical credibility and social discrimination issue.

Secondly, the idea of Travel Bubble is being on the hot topic, but the most of cases is different from the theory due to the country situation. The success depends on how each country has spent preparing for the practice of the Travel bubble.

Thirdly,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ravel Bubble varies by country. Europe opened the border to 13 countries in July, but most of countries still remain closed except for emergent travel such as official or business one. Singapore and Hongkong will launch the first Travel Bubble for leisure purpose, but the success is yet to be seen.

Final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e plan to prepare the Travel Bubble in Korea step by step.

Keywords

COVID-19, Immunity Passport, Travel Bubble, International Travel, Vaccine

집필내역

연구책임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1장~6장

코로나19이후 국제관광 재개현안과 대응방향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2월 18일

발행일 2020년 12월 18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41-6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0>

COVID-19 and the Measure for the Resumption of International Travel for Leisure Purpose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0>

Yongseok Shin